



삼천문화의집

목차

I 삼천문화의집 소개	005
1. 삼천(三川)	006
2.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008
3.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요	010
II 삼천문화의집이 걸어온 길	013
1. 연보	014
2. 삼천문화의집이 걸어온 길	020
3. 삼천문화의집 공간의 변화	056
III 주요활동	063
1. 기초 문화·예술교육	064
2. 동아리 활동	072
3. 기획사업	129
4. 아카이브	147
IV 사람들	181





삼천문화의집

I

삼천문화의집 소개

1. 삼천(三川)

삼천동(三川洞)은 삼천에서 따온 명칭이다. 삼천은 3개의 물줄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천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전주시의 남쪽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일대 노령산맥의 서사면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가, 전주시의 덕진동 일원에서 합류하는 하천이다. 구이면의 계곡리 일대에서 계월천을 합류하며 구이저수지를 지나 덕천리 일대에서 광곡천을 합류하면서 국가 하천이 된다. 전주시의 중심부를 북류하며 전주천과 함께 대표적인 도시 하천이다. 삼천전이라고도 하며, 삼천의 우리말인 세내라고도 한다.

18세기 전국 지방지인『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전주)에는“관아의 서쪽 10리에 있다. 유점치(鎭店峙) 아래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고덕산과 모악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와 합류하기 때문에 ‘삼천’이라고 한다. 북쪽으로 흘러서 안천의 하류와 합쳐진다.”라고 기록되어있다.

1750년대 초 전국의 군현을 회화식으로 그린 지도집인『해동지도(海東地圖)』에서 삼천은 구이동면(仇耳洞面)에서 발원하여 북류하다, 추천교에서 전주천과 합류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서는 중류에 ‘삼천(三川)’이 기재되어 있고, 중류에 ‘소천’, 하류에 ‘추천’이 기재되어 있어 ‘삼천’ 지명이 초기에는 부분칭이었다가, 후에 전칭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천동(三川洞)은 전주시의 남서부에 위치한 동으로, 삼천을 경계로 하여 동쪽에는 삼천동 1가, 서쪽으로는 삼천동2가와 3가가 위치하고 있다.

삼천동의 자연지형은 삼천천 동쪽의 넓은 들과 삼천 그리고 참천의 지류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남동쪽의 계룡산과 천장산, 선인봉으로 이어지는 곳에 산지가 발달해 있다. 조선시대에는 전주군



우림면에 속해 있었으며 이 중 태평리가 이 지역의 으뜸 마을이었다. 1935년 일제강점기에 우림면과 난전면을 합쳐서 우전면으로 개칭한 완주군에 편입되었다. 1957년에 전주시로 편입되어 삼천동으로 개칭되었다. 1994년에 삼천 1동과 삼천2동으로 분동되고, 1995년에 삼천2동이 삼천2·3동으로 나뉘어졌다.

1980년대 전주시의 도심 확장으로 주택과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기 전에는 구도심 외곽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삼천동 지역은 효자동1가와 함께 상거마, 하거마 거마평, 평화동 일원의 난전들의 모습들이 온전히 남아있었다. 삼천동은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하여 현재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2.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가 자리한 삼천동 일원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의 중심 지역에서 이격된 농촌 공간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4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도심 외곽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삼천지구, 삼천2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아파트와 주택지가 건설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전주의 구도심 지역의 노후화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외부로 분산되면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삼천동 일원으로 시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삼천동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1994년 삼천동은 삼천1동과 삼천2동으로 분동하게 되었다. 삼천2동은 삼천2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서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1995년 삼천2동과 3동으로 분동이 되었다. 삼천동1가의 북쪽으로는 효자동1가(효자1,2,3동)가 연결하고 있으며 삼천천을 넘어 북서쪽 일부는 효자동 2가(효자4동)와 연결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완산동과 평화동1가(평화1동)가 연결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평화동2가(평화2동)가 연결하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삼천동과 연결해 있는 효자동과 평화동은 구분된 공간이지만, 과거에는 삼천동, 효자동, 평화동 지역은 한 지역권으로서 마을 간의 네트워크와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삼천동과 평화동 그리고 효자동 일원은 본래 농촌동에서 1980년대 후반에 급격한 도시화를 거친 동이라 할 수 있다. 삼천동 일원과 평화동 일원에 전승되고 있는 기점놀이, 용기놀이가 그 교류의 흔적이다. 현재도 삼천동1가의 서쪽 삼천을 넘어가면 삼천동2가와 삼천동3가의 법정동이 옛 농촌마을의 모습을 일부 간직하고 있다. 용산, 정동, 비아마을을 중심으로 백중날에 열린 기점놀이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평화동에서도 산정마을과 석구동에서 용기놀이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용기가 남아 있다. 기점놀이와 용기놀이는 마을 간의 단합력을 높이

기 위해 행해졌는데, 재미를 높이기 위해 경쟁구도를 극대화시켰다. 삼천문화의집 문화권역은 농촌문화와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삼천동, 평화동, 용복동, 중인동, 원단동, 석구동을 포함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막걸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삼천동1가 623-7번지 일대에 막걸리 골목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은 전주시의 막걸리집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여 현재 많은 맛집과 관광지로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삼천동막걸리골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전주의 막걸리 사랑은 유별나다. 확인된 바 40여 년 전에도 막걸리 한 주전자를 시키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밀반찬이 나오는 이른바 ‘막걸리 한 주전자집’이 있었다. 그 명맥을 전주의 삼천동이나 동부시장 부근, 효자동 일대에서 잇고 있다. 그중 삼천동 막걸리집이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는 막걸리 골목으로 이름이 나있다. 삼천동은 막걸리의 바다다. 삼천동 골목 곳곳에는 막걸리집이 숨어 있는데 이 막걸리집들이 바로 ‘막걸리 한 주전자집’들이다. 막걸리 한 주전자를 시키면 한 상 가득 찰 정도로 밀반찬이 나온다. 밀반찬은 굴 해삼, 홍어삼합, 생선조림, 계장, 꼬막, 오징어, 회, 나물종류 등 다양하다. 돈을 받고 파는 다른 안주도 있지만 상에 나오는 밀반찬으로 막걸리 한 주전자 비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막걸리 한 주전자에 2만원인데 둘이 먹기에 적당하다. 한 주전자를 다 비우고 추가로 한 주전자를 시키면 상에 나오는 밀반찬도 새로운 종류로 추가된다.”

삼천도서관이 위치한 거마공원은 도심 속의 공원으로서 삼천동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다. 거마공원이 있던 자리는 본래 거마들방죽이었다고 한다. 도심개발이 진행되면서 방죽을 메운 것이다. 이곳에 멸종위기 종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 삼천문화의집과 주민들이 적극적인 보호를 하면서 현재는 비교적 많은 개체가 보호를 받으며 서식하고 있다. 2001년부터 삼천문화의집은 삼천을 중심으로 농촌지역과 주거지역이 결합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 모악산, 계룡산, 삼천 등의 풍부한 자연·생태 유산

을 가진 자연적 특성, 기집놀이, 곰솔나무, 막걸리 골목, 공예·공방 작가 등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가진 삼천동의 장소성에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우리가 만드는 삼천문화공동체’를 지향하며 농촌·전통문화를 회복하고,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발굴 및 보급하며, 주민주도의 지역축제를 개최하면서 삼천동의 장소성을 드러내고 형성하는 공동체 공간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

3.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요

1) 개관

2001년 3월 15일 전주시 제 2호 문화의집으로 개관

2015년 9월 1일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 완료 및 재개관

2)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49 2층(삼천동1가)

3) 활동권역 : 전주시 및 삼천·평화·효자권역

4) 운영시간 :

– 주중 : 09시 30분~21시

– 토요일 : 10시~17시

– 휴관 : 일요일 / 공휴일

5) 소개 :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과 함께 즐거운 마을살이를 꿈꾸는 공간이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취미를 나누고, 예술을 펼치며 다양한 생활문화를 꽃피우는 주민들의 문화놀이터이다.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이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나누며 ‘남’에서 ‘우리’로 변화되는 순간들의 기쁨을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6) 공간구성 :

- 꿈꾸는 갤러리 : 전시 및 커뮤니티 공간
- 상상카페 : 공동체 모임 및 공연 공간
- 쿵쾅쿵쾅 : 악기 동아리 연습공간
- 왁작지컬 : 풍물, 요가, 춤 연습공간
- 뒹굴뒹굴 : 휴식 공간
- 도란도란 : 회의 및 간담회 공간

7) 로고 :



- 로고는 삼천(세내)를 상징

8) 운영조직 :



관장은 문화의집 우영총괄 및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 진행,
운영협의회 운영과 대외적 업무 수행 담당

실장은 재무 및 일반사무, 상설 프로그램 관리 및 강사 관리 전담

팀장은 각종 기획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문화의집 홍보 및 공간 운영 전담

운영협의회는 문화의집 사업, 예산, 결산 및 주요 운영사항 협의

- 관장, 공무원, 전문가, 지역인사 등 관계자 6인 이상으로 구성
- 실장이 운영협의회 간사로 참여
- 협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1년 임기로 연임 가능



삼천문화의집

II

삼천문화의집이 걸어온 길(2001~2020)

1. 연보

2001

- 02월 국비와 문예진흥기금, 시비 약 3억 8천만원을 들여 문화창작실, 문화관람실, 비디오감상실, 음악감상실, 인터넷 검색대 등의 시설을 갖춘.
- 03월 15일 삼천문화의집 개관, 운영은 '전주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맡았으며, 관장으로 지역일간지 문화부 기자 출신인 신미영씨를 선임
- 09월 매주 화요일 '주부들을 위한 화요 영화감상' 개최.
- 10월 한글날 기념 특강 '방언으로 들여다본 전라도 사람들의 삶' 개최.
- 12월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전통문화 교실과 일반 교실), 주부들을 위한 일본어 기초회화 강좌 개최

2002

- 01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2002 우수졸업생 초대조각전' 개최.
- 07월 전통문화교실 운영, 극단 안데르센 초청 '아기돼지 6남매' 공연 개최

2003

- 04월 삼천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두) 수탁기관 선정, 관장은 교사출신 박원희씨 선임
- 08월 '엄마와 함께하는 도자기 현장체험' 행사 개최,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개최

2004

- 03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특집주간 마련,
작은 음악회 '포크가수 김대훈씨와
함께 하는 봄맞이 포크 라이브 무대' 개최
- 04월 '장애우와 함께하는 테마콘서트' 개최
- 06월 '6월의 수채화 테마콘서트' 개최
- 07월 '여름밤의 세레나데 테마콘서트' 개최
- 11월 사진작가 고준석씨의 '야생화 순회전' 개최
- 12월 '장애우와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개최

2005

- 01월 '훈불문학관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진행
- 05월 '미술아 놀자!' 개최, 6월 '독차와 함께하는 테마문학 기행' 진행
- 07월 '2005 전주시 문화자원봉사자 양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 08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기자가 되고 싶어요' 개최,
별자리 캠프 '꿈을 찾는 별자리 여행' 개최
- 10월 문학과 예술의 만남 '효자 · 삼천갯강축제' 개최

2006

- 03월 삼천문화의집 운영단체로 (사)나누는 사람들 선정
(이준호 관장 선임),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터널 속 대탐험' 진행, 방학을 맞이하여
'특별한 여름나기' 진행,
'우리동네 산책 나온 그림전' 개최
- 10월 '2006 갯강놀이축제' 개최

2007

- 01월 '제1회 전국문화의집 축제(전토문화센터) 공동 주관
- 04월 '창의력과 상상력이 커지는 리폼교실' 운영
- 08월 '한국민화 배우기' 진행
- 09월 어린이 큐레이터가 만드는 '우리동네 소장품전' 개최
- 11월 '세 여자의 행복한 공예전'을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개최
- 12월 민화교육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 '이야기가 살아있는 우리민화전' 개최

2008

- 01월 이준호 삼천문화의집 관장이 전국 문화의집을 대표해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소장품 탐험대' 진행
- 10월 전주문화의집 오픈 하우스 진행

2009

- 03월 전주시접놀이보존회가 삼천문화의집 운영권자에 선정 (이수영 관장 선임)
- 10월 '2009 세내 전통문화축제 개최'
- 11월 '삼천2동 이야기지도' 제작 및 배포, '삼천동 아트데이' 개최
- 12월 문화과광체육부가 선정한 '2009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

2010

- 03월 '토요일N 문화놀이터' 운영
- 04월 '신나는 토요일 나눔 장터' 개최
- 07월 가족 생물교실 '세내 아이들이 놀이터 삼천' 개최
- 08월 민족문화강좌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개최
- 10월 '한여름밤의 꿈' 개최, '2010세넛가뽕다리축제' 개최,
삼천2동 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 공공미술작업 '이야기를 담은 숲' 진행

2012

- 01월 이두현 관장 선임
- 09월 '2012세내문화축제' 개최

2013

- 08월 삼천2동 막걸리 골목에서 '막걸리 콘서트' 개최
- 12월 (사)전통문화예술원 모악이 삼천문화의집
수탁단체로 선정(최기춘 관장 선임)

2011

- 03월 '삼천3동 이야기지도'와 '삼천문화지도' 발행
- 07월 '세내 예술나눔 프로젝트' 진행
- 08월 '우리마을 이야기탐방' 진행
- 09월 '평화동 이야기지도' 공동 제작, '2011세내문화축제' 개최



2018

01월 전주문화의집협회 공동기획 프로그램
'전주 명인과 함께하는 지붕 없는 문화장터' 개최

2019

02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도전! 만화가' 진행
05월 '삼천초록별축제' 개최
07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우리들의 몸짓이야기' 진행(7월~12월)
08월 삼천동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축제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 개최
10월 '2019 삼천마을축제' 개최

2020

01월 전주시 직영으로 운영
12월 전주기접놀이보존회가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

2. 삼천문화의집이 걸어온 길(2001~2020)

2001년 3월 15일 개관

2000년 진북문화의집에 이어 전주에서 두 번째로 삼천2동 동사무소 2층에 문화의집이 개관하였다. 그동안 삼천2동에서 운영하던 각종 동아리 활동 장소였던 만큼 이미 지역주민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장소였다. 특히 삼천동 주택가 중심에 위치한 만큼 30~40대 주부층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운영계획을 세웠다. 전주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맡아 운영되었으며, 초대 관장은 지역일간지 문화부 기자 출신인 신미영이다. 삼천문화의집은 국비1억 5천만원, 문예진흥기금 4천만원, 전주시비 1억 9천만원 등 모두 3억8천만원을 투자해 문화창작실, 문화관람실, 비디오감상실, 음악감상실, 인터넷 검색대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한지공예, 생활퀼트, 직장인 사물놀이, 문예창작, 스포츠탄스 등 16개 과정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신미영 관장은 삼천문화의집을 “문화에 술과 친교, 인정이 오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작은 복합문화공간”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참여의 장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2001년 9월

가을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주부들을 위한 화요 영화감상’, ‘어린이 요술풀선 만들기 무료강좌’를 비롯하여 건강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2001년 10월

한글날 기념 특강 ‘방언으로 들여다본 전라도 사람들의 삶’을 열었다. 전라북도언어문화연구소 김규남 소장이 강사로 나와 전라도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전라도 방언의 가치와 그에 담긴 문화적 정체성을 소개하였다.

2001년 12월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전통문화 교실과 일반 교실 두 분야로 나뉘어 전통예절과 현대식 매너 익히기를 비롯해 전통한지공예 체험교실, 한지 민속부조 교실, 우리 민요와 춤배우기, 생각하는 글쓰기 특강, 손뜨개 교실 등 6개를 운영하였다.

2001년 12월

주부들을 위한 일본어 기초회화 무료 강좌를 12월5일부터 2002년 3월말 까지 운영하였다.

2002년 1월

전주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철량)가 주최하고 삼천문화의집이 주관하는 '2002 우수졸업생 초대조각전'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개최하였다.

2002년 2월

2002년 신규 프로 강좌 수강생 모집. 프로그램은 어린이 판소리와 한춤당, 바이올린 교실, 천연염색교실 등 3개 강좌였다.

2002년 7월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전통예절과 현대식 매너 익히기', '한지공예 체험교실', '한지 민속부조 교실', '어린이 풍물교실'이었다.

2002년 11월

5일 전주 삼천남초등학교 강당에서 삼천문화의집이 극단 '안데르센'을 초청해 '아기돼지 6남매'공연을 개최하였다. 이 작품은 물과 자원을 주제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다.

2002년 12월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통예절과 현대식 매너 익히기’, ‘한지공예 체험교실’, ‘한지 민속부조 교실’, ‘생각하는 글쓰기 특강’, ‘영어동화교실’, ‘손뜨개교실’등 6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2003년 1월

잊혀져가는 전래놀이를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설맞이 민속놀이’를 준비했다. 제기차기 놀이와 공기놀이 대회가 열렸다.

2003년 4월

2001년 3월부터 전주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맡아 운영했던 삼천문화의 집은 2003년 4월부터 3년 동안 삼천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두)가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교사출신 박원희씨가 관장으로 선임되었다.

2003년 8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엄마와 함께하는 도자기 현장체험’행사를 임실 불재 도자체험학습장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국박물관연구회와 함께 잊혀져가고 있는 문화유산인 단청을 함께 그려보는 ‘단청체험학습’을 운영하였다.

(사)한국만화가협회가 주관하는 ‘2003우수만화원화작품’이 삼천문화의집에서 전시되었다. 진보적인 만화문화를 지향하여 제작한, 다양성을 존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2003년 10월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삼천둔치 특설무대에서 개최하였다. 식전행사로 길놀이 풍물패와 놀이패 우리마당이 흥겨운 가락으로 문을 열고, 1부에서는 어린이·일반인 재즈댄스, 어린이 풍물반 등 삼천문화의집 수강생들이 꾸몄다. 2부 특별공연은 실내현악단 ‘평화의 소리 앙상블’, 김대훈의

‘포크기타와 함께’, 전북대 그룹사운드 ‘육자배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2004년 1월

김광석 추모 콘서트를 열었던 인터넷카페 ‘뮤지션클럽’과 포크가스 김대훈이 삼천문화의집과 함께 다목적홀에서 김광석 추모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004년 3월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특집주간을 마련했다.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천공의 성 라퓨타’ 등 네 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또한 같은 달 김광석 추모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 작은 음악회 ‘포크가수 김대훈씨와 함께 하는 봄맞이 포크 라이브 무대’를 열었다.

2004년 4월

장애우와 함께 하는 희망의 노래를 주제로 4월 테마콘서트를 마련했다. “음악을 매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 기획의 의도였다.

2004년 6월

‘6월의 수채화’를 테마로 한 포크음악과 함께하는 테마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004년 7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화요주부영화감상실’을, 토요일에는 어린이를 위한 영화 감상을 운영하였다. 7월의 테마콘서트는 ‘여름밤의 세레나데’라는 주제로 포크가스 김대훈씨와 클래식2중주 ‘코엔코’가 공연했다.

2004년 10월

7일 삼천둔치에서 삼천문화의집 수강생들의 발표회와 지역예술인들의 참여

무대로 꾸며진 ‘가을밤의 향연’이 열렸다. 어린이풍물반 소리천하와 바이올린, 라틴댄스, 재즈댄스, 건강요가 시범 등 수강생들이 직접 꾸민 무대에, 대금 김성호, 장구 장재환, 포크기타 박영일, 색스폰 박상철, 가요 라정숙의 특별공연이 있었다. 10월 15일과 25일 삼천문화의집 문화관람실에서는 ‘문학강연 및 포크시낭송의 밤’이 개최되었다. 김용택 시인과 안도현 시인의 문학이야기가 펼쳐졌다.

2004년 11월

사진작가 고준석씨의 ‘야생화 순회전’이 개최되었다.

2004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장애아 꿈나무 부설 놀이방 후원원금 마련을 위한 장애우와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전북대 구정문 앞 클럽 투비원에서 개최하였다.

2005년 1월

‘혼불문학관’으로 떠나는 문학기행을 진행하였다. 남원 혼불문학관과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서도역 등을 돌아보며 최명희의 삶을 반추해 보았다.

2005년 5월

특별프로그램으로 ‘미술아 놀자!!’를 열었다. 삼천도서관 옆 거마공원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서양화가 임택준씨가 함께 했으며, 색종이 오려붙이기, 신체를 이용한 찍기, 물감이나 매직을 이용한 그리기 등 놀이식 미술체험으로 꾸려졌다.



삼천문화의집 ‘미술아 놀자’(사진_전북일보)

2005년 5월

매월 넷째주 토요일이 ‘학교 안가는 날’이 되면서 다양한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좋은 책 나눠읽기, 칼라믹스, 종이접기, 도예체험, 한옥

마을 탐방, 전래민속놀이 등을 진행했다.

2005년 6월

소설 「태백산맥」의 흔적을 쫓아 ‘녹차와 함께하는 테마문학 기행」을 떠났다. 소화다리, 선근다리, 꼬막밭, 재석산, 동화사, 부용산, 철다리, 현부잣집, 김범우집, 남도여관 등 보성군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 「태백산맥」속 별교를 찾아갔다.

2005년 7월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 전주시 문화자원봉사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7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삼천문화의집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전북도립미술관, 국립박물관, 예술의전당, 인사동 거리 등을 탐방하였다. 강사로는 이춘아 지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종근 전민일보 문화부 차장, 이종진 전주문화원 사무국장, 이광철 국회의원 등이 나섰다.

2005년 8월

어린이들에게 논리적인 글쓰기와 국어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신문기자가 되고 싶어요’를 마련했다. 초등학교 4학년생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8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었고, 어린이들이 기사를 직접 작성하고 원고를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글쓰는 방법을 배워보고, 문장과 글을 다듬고 맞춤법도 공부하며, 나아가 가족신문과 학급신문을 만들었다.

8월 6일부터 7일까지는 별자리 캠프 ‘꿈을 찾는 별자리 여행」을 실시하였다. 별자리 캠프는 충북 보은군에 있는 서당골 천문관측대를 찾아가 천문 및 우주에 관한 실내강의를 비롯 내가 만든 우주, 별자리 조건판, 열기 등을 직접 만들어보고, 천문 돔에서 별자리 태양 흑점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2005년 10월

문화와 예술의 만남 ‘효자삼천갯강축제’를 전주 삼천둔치에서 열었다. 효자 문화의집과 함께 마련한 이 축제는 두 문화의집 동아리 발표회, 우리마당의 사물놀이와 유지화 상쇠 놀음, 대금 연구, 기접 놀이 등이 공연되었다. 삼천 지역의 지도를 만들어 보는 걸리버맵 만들기, 탁본체험과 삼천사람 그리기 대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되었다.

2005년 12월

포크가수 김대훈과 삼천문화의집이 마련하는 장애아 꿈나무 놀이방 후원금 마련을 위한 공연이 전주옥성문화센터 3층에서 열렸다.

2006년 3월

삼천문화의집 운영권자로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은 프로그램 적정성과 전문인력 보유, 조직인력 운용 영역, 실현가능성, 주민과의 친밀도, 홍보 등이다. 관장은 전주공예품전시관 사무국장, ‘효자삼천 갯강놀이축제’의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준호이다.

2006년 5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터널 속 대탐험’을 삼천남초등학교 강당에서 열었다. 꿈이 있는 놀이터란 부제가 붙은 이 탐험은 아이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해 보고 모둠별로 테마를 정해 표현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행위예술가 임택준씨와 설치미술가 정하영씨가 강사로 참여했다.

2006년 7월

방학을 맞이하여 ‘특별한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린이 노래방’, ‘방학숙제 119’, ‘장난감 병원’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과, 작은 콘서트 ‘신선한 저녁愛’, 생태체험 프로그램 ‘삼천아, 놀자’, ‘민화그리기’, ‘엄마와 함께하는 도예체험’ 등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2006년 8월

지역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들을 모아 삼천문화의집에서 ‘우리동네 산책나온 그림전’을 전시했다.

2006년 10월

2006 갯강놀이축제가 10월 27일에서 28일까지 전주삼천둔치에서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삼천의 생활문화예술공간화 사업의 한 축으로 지역주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문화축제다. 갯강축제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삼천동 일대에서 행해졌던 농경의례놀이인 ‘큰줄 당기기’, 마을 용기(龍旗)와 미술가들이 만든 현대적 창작기가 어우러지는 깃발미술제 ‘깃발, 삼천을 날다’를 중심으로 손새끼 꼬기, 계란꾸러미 만들기, 박 터뜨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곁들여졌다. 이외에도 삼천문화의집 동아리가 참여하는 ‘가을밤의 향연’을 비롯해 진안중평굿보존회의 ‘판굿’, 전주기접놀이보존회의 ‘용기놀이’도 마련되었다. 이 축제는 전북민예총, 삼천2동, 삼천3동, 효자3동, 삼천2·3동 효자3동 주민자치위원회, 효자문화의집,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전주역사박물관 등이 함께 했다.



2006년 12월

전주삼천문화의집 한지와 종이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의 작품전인 ‘한지민속부조작품전’이 열렸다.

2007년 4월

나무, 돌, 황토 등 자연친화적 재료와 다색의 모자이크 타일, 스테인드 글라스 물감 등을 활용해 생활공간을 새롭게 꾸며보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커지는 리폼교실’을 열었다. 설치미술가 정하영씨가 강사로 참여했다.

2007년 8월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민화 배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07년 9월

어린이 큐레이터가 만드는 ‘우리동네 소장품’전을 진행했다.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큐레이터들이 직접 소장가들의 집을 방문해 20여점의 그림을 모으고 전시회 현수막과 전시벽도 제작했다.



2007년 11월

(사)나누는사람들이 주최하고 삼천문화의집이 주관한 ‘세 여자의 행복한 공예’전이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열렸다. 삼천문화의집 강의를 하다가 만난 인연으로 송은숙, 정미영, 유미씨가 함께 전시를 했다.



2007년 12월

‘어린이 큐레이터가 만드는 우리동네 소장품’전과 ‘세여자의 행복한 공예’전에 이어 ‘이야기가 살아있는 우리민화’전을 삼천문화의집 문화관람실에서 열었다. 이 전시는 6개월 간 삼천문화의집에서 민화 수업을 받은 수강생들이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2008년 1월

이준호 삼천문화의집 관장이 전국 문화의집을 대표해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2007년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문화의집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삼천갯강문화공간사업으로 주민통합형 축제인 갯강축제를 개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008년 2월

설날 특별프로그램으로 ‘관장님 놀아주세요’를 준비했다. 이준호 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아이들에게 명절의 의미를 전하고, 한지제기와 팽이 만들기, 상모 체험, 장작웃놀이 등을 아이들과 체험했다.

2008년 4월

‘어린이 큐레이터가 만드는 우리동네 소장품’전에 이어 ‘소장품 탐험대’를 진행했다. 어린이들이 직접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들의 소장품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우리집 소장품 사연’, ‘문화의집 진품명품 쇼’, ‘삼천동 마을기 이야기’, ‘우리동네 소장품전’ 등이 이어졌으며, 강사로는 미술가 정하영 한숙씨가 참여했다.

2008년 10월

전주문화의집(삼천, 우아, 인후, 진북, 효자)이 10월 한 달 동안 오픈 하우스를 진행했다. 마지막 행사로 인후문화의집에서 ‘전주문화의집 포럼’을 개최하고, ‘2008 전주문화의집 비전선언’이 발표됐다.

2009년 3월

전주기집놀이보존회가 삼천문화의집 운영권자에 선정되었다. 기집놀이보존회는 삼천동 중인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통놀이인 기집놀이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생적인 지역문화단체이다. 관장은 지역노래단체인 ‘노래모임 우리동네’를 10여 년 간 이끌어왔으며, 지역축제에서 공연기획 및 홍보 등을 담당한 이수영씨이다.

2009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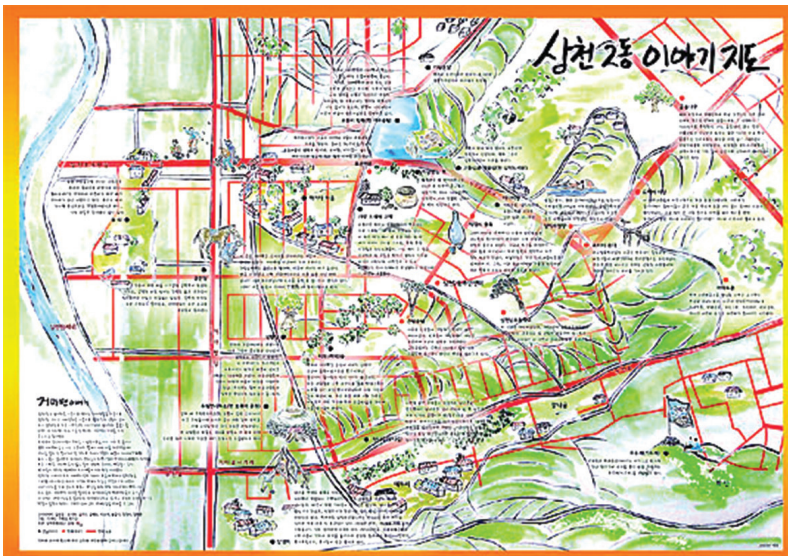
사단법인 기집놀이보존회와 세내전통문화축제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삼천문화의집이 주관하는 ‘2009 세내 전통문화축제’가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 삼천면 세내교일대에서 열렸다. 축제의 중심 프로그램은 기집놀이와 용기 전시와 용기 제작이다. 이외에도 문화공연과 퍼포먼스, 어린이 글짓기, 그림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용산마을용기(위)와 기집놀이보존회 청룡기

2009년 11월

삼천 2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이야기제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8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지도 조사원을 모집, 삼천 2동의 구석구석을 탐사하고 개발 이전에 거주했던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여 만들었다.



2009년 11월

삼천문화의집과 삼천동 아트데이 주민기획단이 함께 ‘삼천동 아트데이’를 열었다. ‘삼천동 아트데이’는 삼천동의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바꿔보기 위해 시도한 일종의 문화실험 프로젝트이다. ‘맹꽁이 놀이터’를 비롯해, 삼천동의 다양한 공간과 사람을 사진에 담은 ‘우리동네 사진전시회’, 아이들의 눈에 비친 ‘아이들이 바라본 우리동네 글과 그림전’, 공예체험, 공연 등이 펼쳐졌다.



25일 삼천둔치 특설무대에서 삼천문화의집 여섯 번째 프로그램 발표회가 열렸다.

2009년 12월

전주 삼천문화의집이 문화관광체육부가 선정한 ‘2009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뽑혔다.



2010년 3월

‘토요일N 문화놀이터’의 일환으로 ‘퀼트와 색실을 이용한 리폼’ 교육을 진행했다.

2010년 4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신나는 토요일 나눔 장터’를 열었다. 토요일 나눔 장터는 도서와 장남감, 수공예품, 중고물품 등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장터이다. 별도의 접수 없이 당일 판매 물품을 가지고와 문화의집 공간 중 아무 테나 자리를 잡고 판매하면 된다. 삼천문화의집에서는 ‘나만의 가게’ 간판과 깔개를 지원했다.

2010년 5월

주민 조사원을 모집하여 '삼천문화지도'를 제작하였다. '삼천문화지도'는 삼천동에 사는 예술가와 시민예술가들의 공방과 단체연습실, 개인예술공간, 시민예술공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지도이다.

2010년 7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함께 가족 생물교실 '세내 아이들의 놀이터 삼천'을 열었다. 삼천을 직접 걸어보며 진행했으며, 미니 식물도감 제작, 곤충채집 등을 체험했다.

2010년 8월

여름방학을 맞아 민족문화강좌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를 진행했다. 삼천동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할아버지들이 강사로 나서 마을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모악산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해, 용기 이야기, 백중놀이 관련된 백중이야기 등을 3회에 걸쳐 진행했다. 삼천 3동 하봉 마을에서 재현되는 백중놀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체험행사도 가졌다.

2010년 9월

지역의 문화예술가와 삼천문화의집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함께 준비한 '한여름밤의 꿈'이 4월 오후 7시에 전주시 삼천도서관 옆 거마공원에서 열렸다. 벨리댄스와 재즈댄스를 비롯해 기타, 퓨전국악 연주 등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문화체험을 발표했다. 공연에 앞서 켈트와 한지공예로 만든 작품, 리폼으로 만든 생활 소품 등 수강생이 만든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으며, '신나는 나눔장터'도 열렸다.

2010년 10월

(사)기접놀이보존회와 삼천문화의집이 주관하는 '2010세넛가싶다리축제'가 30일 전주삼천변 세내교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세넛가에 싹다리를 시민과 함께 설치하고, 시민들이 만든 창작품 전시와 풍물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2010년 11월

‘이야기를 담은 숲’이라는 테마로 삼천2동 주민센터 앞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공공미술작업을 진행했다. 삼천남초등학교와 삼천문화의집 근처 미술학원 학생들 및 지역아동센터가 동참해 삼천의 자화상을 담은 700여개의 타일작품을 제작하여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였다.

2011년 3월

삼천3동 이야기지도와 삼천문화지도를 발행했다. 삼천3동 이야기지도는 삼천 3동이 가지고 있는 전주기접놀이와 같은 전통민속놀이와 뛰엎다리, 땡뽕산 같은 지명과 관련된 민간설화, 우물물 흠치기 같은 민간풍습 등을 담았다. 삼천문화지도는 삼천동 내에 있는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포함돼 있다.

2011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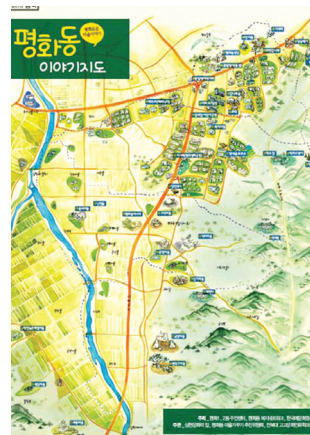
삼천문화의집과 삼천동 지역의 문화예술 인력들이 지역 주민들과 문화서비스를 나누기 위해 ‘세네 예술나눔(ART&SHARING)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7회의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공간과 내용을 선정하고 ‘세네골 음악회’와 ‘세넷가창작갤러리’를 진행했다.

2011년 8월

여름방학을 맞아 마을에서 전해내려오는 이야기와 전통을 알아가는 ‘우리마을 이야기탐방’을 진행했다. 전주기접놀이가 보존되고 있는 삼천동 용산마을, 모악산 아래 원종인 마을의 백중놀이 탐방 및 체험을 진행했다.

2011년 9월

삼천문화의집의 집은 평화1·2동주민센터, 평화동 복지



네트워크, 평화동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와 함께 평화동 이야기지도를 제작했다.

2011년 10월

2011세내문화축제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2011세내문화축제시민기획단과 삼천문화의집이 주관하는 ‘2011세내문화축제’가 삼천천 부근에서 열렸다. 전주지역 200여명의 풍물패와 용기수, 좌상단, 기수단, 시민20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퍼레이드인 ‘평화·삼천길꼬내기’를 시작으로, ‘씻다리 개통식’, ‘용기그리기와 기점놀이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전주역 사박물관에서는 삼천동과 평화동, 효자동 일대에서 전해오는 용기(龍旗)를 전시하는 특별전 ‘용기, 천년전주를 날다’를 개최했다.



‘용기 천년전주를 날다’에 전시되는 비아마을 용기(삼천문화의집 제공)

2012년 1월

신임 관장에 이두현씨가 선임됐다. 가족복지교육원 강사, 가정폭력 상담사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3년 6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삼천 in 디지털 : 삼천동막걸리골목’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삼천문화의집 앞에 소재해 있는 2군데의 막걸리골목을 소재로 삼아 전통서민의 술인 막걸리와 주점에 녹아 있는 서민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지역거점인 막걸리골목을 통해 시민문화에 슬교육사업의 모델화를 목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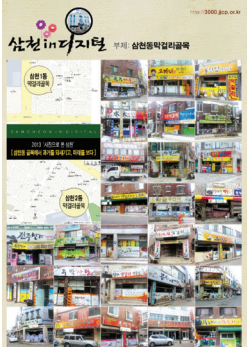
2013년 7월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역사논술’, ‘교육미술’, ‘단소교실’을 열었다.

2013년 8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에 삼천2동 막걸리 골목에서 주민들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막걸리 콘서트를 개최했다.

8월 26일 오후 7시에 삼천동 거마공원에서 ‘거마공원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 음악회는 폭염에 지친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삼천문화의집 상설강좌 회원과 동호회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삼천문화의집 여름방학 특강

 역사논술 (초등학교 4~6학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1시30분 (7월 27일~8월 24일) 역사논술은 한국사의 주요사건, 인물, 문화유산을 주제로 글쓰기와 토론 하는 프로그램	 교육미술 (초등학교 3~6학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3시 (7월 27일~8월 17일) 장동 예술기법을 학습교과에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미술을 하는 사이 교과관련 내용을 익히고 더불어 관공제, 우리글, 감상력을 향상 시켜 창의력, 발표력을 고취하는 프로그램	 단소교실 (초등학교 3~6학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30분 (7월 26일~8월 16일) 초등학교 교과 과정(5~6학년)인 단소를 소개하고 연주 가능한 민요를 연주하는 프로그램
--	---	--



전주의명소 삼천동막걸리골목 막걸리콘서트

- 제 1차 8. 3(토) 저녁 7시 / 골목 인사파티
- 제 2차 8.10(토) 저녁 7시 / 골목 아레사파티
- 제 3차 8.17(토) 저녁 7시 / 삼천동막걸리골목프로모션데이
- 제 4차 8.24(토) 저녁 7시 / 막걸리150제 / 골목 인사파티
- 제 5차 8.28(토) 저녁 7시 / 가마공원음악회 / 가마공원

<출연진 / CAST>

- 삼천동 일동아 (계동농악단, 새내 거마동 일동)
- 오지현밴드
- 프프프가수
- 김철이밴드
- 로즈비엔드
- 홍기희와 세스밴드
- 서울악대즈
- 삼천문화의집 마에스트로 수물대아 (김지현,박지현)
- 세스밴드

후원 : 전주시교육청(문화예술진흥과), (주) 삼천동막걸리골목, (주) 삼천동막걸리골목, (주) 삼천동막걸리골목, (주) 삼천동막걸리골목, (주) 삼천동막걸리골목

2013년 12월

전통문화예술원 모악이 삼천문화의집 수탁단체로 선정됐다. 관장은 최기춘씨가 선임됐다.



2014년 1월

20일 1/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천문화의집 운영협의회 회장 선출, 2014년 사업계획 중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필요, 삼천만의 색깔을 살려서 지역의 주민그룹과 공동으로 사업진행 필요 등이 논의되었다.

2014년 3월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선정됐다. ‘우리동네 초록별이 자란다’를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했다.

26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주요내용으로는 2/4분기 사업 및 예산 계획 심의, 프로그램 구성 등이 논의되었다.

2014년 6월

30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삼천마을신문 발행 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종 단체 회의에 맞춰 배포, 마을신문 내용에 살아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아낼 것 등이 논의되었다.

2014년 7월

‘2014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에서 삼천문화의집이 생활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선정됐다. ‘우리동네 초록별이 자란다’는 삼천동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직접 예술텃밭과 꽃밭을 가꾸는 프로그램이다.

함께 살고 싶은 마을!

2014 세내 축제

삼천동은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이 살아있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2014 세내 축제는 마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준비합니다. 시효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들 살아있는 마을의 공동체를 체험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자연생태계를 되살리는
전 세대가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는 축제 한마당입니다.



주요프로그램 참여문의 Tel: 033-224-0088 Fax: 033-224-0089 http://2000.jcu.or.kr csn2000@hanmail.net

상설전시
· 아이 나라 책소
· 세내 마을의 역사와 문화, 환경
· 전통 : 관공, 세내, 세내, 세내 등
· 문화유산 (삼천문화의집) 등

가정전시
· 세내 마을의 역사와 문화, 환경
· 전통 : 관공, 세내, 세내, 세내 등
· 문화유산 (삼천문화의집) 등

· 세내 마을의 역사와 문화, 환경
· 전통 : 관공, 세내, 세내, 세내 등
· 문화유산 (삼천문화의집) 등

주최 2014 세내 축제 재단위원회 주관 삼천문화의집 삼천사랑 후원



열렸고, 거마공원에서는 풍이페스티벌이 열렸다.

2일 4/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2014년 4/4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2014년 12월

삼천문화의집과 '삼천사람'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아트마켓 '개나리장터'가 열렸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개나리장터는 지역의 마을기업, 예술가, 공방, 동아리, 주민예술가 등이 중심이 돼 생활도자기, 한지공예, 목공예품, 비누공예, 실크공예, 서리태공 등 농산물을 전시·판매·체험하도록 진행됐다.

2015년 1월

19일, 20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삼천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구성,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 홍보, 타프로그램 도구 사용하지 않기, 강의실 정돈, 활발한 강사모임을 위한 밴드 운영,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동아리 성격 모색 등이 논의되었다.

1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통예술(속풀이 풍물), 미술·공예(목판화, 전통민화, 칠보공예, 천연염색, 테라코타), 사진(사진 촬영법), 뷰티(네일아트), 어린이(어린이 마술, 어린이 만화교실)

2015년 2월

5일 삼천문화의집 동아리 1차 간담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아리 대표자모임을 위한 밴드 운영 추진, 삼천문화의집 이용 요일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2015년 3월

지난해에 이어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선정됐다. ‘우리동네 초록별이 자란다 시즌2’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삼천동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직접 예술티밭과 꽃밭을 가꾸는 프로그램이다. 4월 17일부터 11월까지 총 30여 차례 진행됐다. 3월 16일과 3월 26일 DIY목공예 특강 ‘木요일, 나무를 만나는 시간’을 실시하였다.



2015년 4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군부대와 의경부대, 보호관찰소, 청소년쉼터 등의 문화소외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용사들의 스케치북(국방부, 통기타), 엔젤스 뮤직 앙상블(여성가족부, 아카펠라), 락밴드(법무부, 밴드), 의결들의 스케치북(경찰청, 통기타) 주제로 운영됐다.

4월 8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문화

활동가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공모 신청시 지역의원들과 사업방향 논의, 상설프로그램 및 문화동아리 신설시 주민센터 홈페이지 이용 등이 논의되었다.

201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5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개가 선정됐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자별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사업 '용기들 뭉그러!!!'와 어르신문화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사업 '우리동네 행복 택배 예술단'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2015년 7월

22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사진' 및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개설 필요, 회원 수가 적은 프로그램 정리, 소외계층 대상 사업 추진, 공모사업 과다 수행에 따른 직원 업무 과중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2015년 8월

2015 마을일꾼 삼천사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동네 불평 박물관'을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까지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동네 축제를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일 생활문화교실 '우리 동네 스타킹'을 8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까지 진행했다. 선물포장법, 리본묶기, 뜨개질, 수세미만들기, 과일 매니저, 두 아이의 엄마이야기, 엄마의 밑반찬, 힐링 꽃꽂이, 면생리대 만들기, 예쁜손톱 네일아트 등 주민이 알고 있는 생활 노하우를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진행했다.



선물포장법, 리본묶기



세미 만들기



과일매니저



엄마의 밑반찬



면생리대 만들기

2015년 9월

12일 토요일 14시부터 19시까지 삼천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개관 길놀이와 퍼포먼스, 축하 공연과 개관 기념으로 생활문화마켓 개나리장터를 열었다.

2015년 10월

14일 4/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생활문화활동 지원 사업 '우리 동네 스타킹'의 결과를 책자 및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적극 활용 필요, 2015 세내 축제명에서 삼천동이라는 단어 강조 필요 등이 논의되었다.



2016년 1월

20일 1/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2016년 운영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삼천문화의집 활동내역 지역 및 관외 홍보활동 강화, 문화예모임 및 부녀회 등 지역모임의 삼천문화의집 유치, 삼천문화의집 공간 활용 확대,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를 위한 캠페인 진행 등이 논의되었다. 1월에서 2월까지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 수요일극장'을 열었다.

1월2월 우리 동네 수요일극장 포스터. 삼천문화의집에서 전통길 영화한다고 전해왔!!

· 일시 : 2016년 1월~2월 매주 수요일
· 장소 : 삼천문화의집 상설극장
· 상영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 오후3시 / 오후7시

날짜/날씨	부인을 위한 영화 (오전10시)	여인을 위한 영화 (오후3시)	가족을 위한 영화 (오후7시)
1월 16일	수상한 그녀	여왕의 게임	편지
1월 23일	미생	미생	미생
1월 30일	박 씨	박 씨	박 씨
2월 6일	박 씨	박 씨	박 씨
2월 13일	박 씨	박 씨	박 씨
2월 20일	박 씨	박 씨	박 씨
2월 27일	박 씨	박 씨	박 씨

영화와 영화를 만든 사람들
100인의 대형 스크린으로 만든 크고 신명나게!!
감 것도 없으면 쓰나미 같은 나뉘드려요!!

삼천문화의집으로 오시면 더욱 재미난 생활문화가 가득합니다!!

2016년 4월

‘한국 중단편 문학 이해’와 <신상옥의 자연의학> 인문학 관련 신규강좌를 운영하였다.

2016년 4월

22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주간 상설 프로그램 및 문화동아리 개설 보고, 2016년 공모사업 선정 결과 보고, 인문학 프로그램 개설 필요 등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날 생활문화난장 '개나리장터' 포스터. 5월 25일 14:00 ~ 18:00, 6월 29일 14:00 ~ 18:00.

5월 25일 14:00 ~ 18:00
가정의 달 내 손으로 전통을 만들어 가족들과 나눌까?
공예작업을 통해 직접 전통을 만들거야!
가득 채워 전통을 만드세요.

6월 29일 14:00 ~ 18:00
2016 시장을 여는 준비하기
의미를 만들거야! 그 첫 걸음은 전통시장이야!
의미를 만들거야!
의미를 만들거야!

공예체험, 전시, 먹거리장터, 음악회 등 여러 체험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장소 :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문의 : 063-224-3088

2016년 5월

25일과 6월 29일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날에 생활문화난장 '개나리장터'를 열었다.

2016년 6월

전수시사회적경제 ·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막걸리 골목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점담회)를 개최하였다.

<막걸리 골목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점담회에 초대합니다>

2016년 6월 29일(수) 오후 2시 30분
전수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막걸리 골목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점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날은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점담회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점담회를 개최합니다.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점담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점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점담회를 개최합니다.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점담회를 개최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막걸리 골목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점담회를 개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전수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막걸리 골목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점담회를 개최합니다.

장소 : 전수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2) / 문의 : 02-224-3088

2016년 7월

21일 2016 동아리 대표자 1차 간담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동아리 현황파악, 동아리 활성화 방안 모색, 문화의집 공간 이용 등이 논의되었다.

2016년 10월

18일 한국춤 동아리가 제33회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살풀이 단체전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2016년 8월

삼천동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공예작가들의 모임인 삼천사람-시민예술가 모임에서 브랜드네임을 공모하였다. 최우수작에는 ‘고살’, 우수작에는 ‘손끝 愛’, 장려작에는 ‘꽃손’이 선정되었다.



2016년 10월

5일 2016 삼천문화의집 동아리 대표자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2016 세내축제 참여, 동아리 운영규정 및 문화의집 공간 이용 관련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2016세내마을축제’가 10월 22일 토요일 거마공원에서 열렸다.

2016년 11월

1일 삼천동 거마공원에서 ‘2016 세내마을축제’를 개

최했다. 콩이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꾸민 ‘우리 동네 스타킹’, 삼천지역 학교 공연 동아리들의 무대인 ‘슈퍼스타 삼천’, ‘생활문화동호회 공연’, ‘재활영 나눔장터’로 구성됐고, 우리동네 가족박물관은 ‘가족 낚시대회’, ‘가족운동회’, ‘30일의 타임캡슐’, ‘가족의 기록’ 등으로 구성됐다.

2일 2016 삼천문화의집 동아리 대표자 3차 간담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및 동아리 현황 파악, 삼천문화의집 발표회 등이 논의되었다.



2016년 12월

전통예술원 모악이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됐다. 최기춘씨가 관장으로 선임됐다. 12월 20일 2016 삼천문화의집 동아리 대표자 4차 간담회가 열렸다. 주요내용은 2016년 성과보고, 2017 동아리 활동 계획, 지자체 동아리 관련 지원 사업 안내 등이 논의되었다. 12월 29일 상상카페에서 칸타빌레 만돌린오케스트라와 우쿨렐레 오케스트라 동아리 송년회 공연이 있었다.



2017년 3월

30일 1/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주요내용은 2017년 사업계획서 보고, 상설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확보 등이 논의되었다. 3월 28일 프로그램 강사 1차 간담회가 열렸다. 2017년 프로그램 운영 계획,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공간 이용 등이 논의되었다.

2017년 6월

17일 '가족과 함께 만드는 에너지 생활기술 워크숍'이 열렸다. 30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직원 급여 개선 문제, 문화의집 사업의 DB구축 필요 등이 논의되었다.

2017년 8월

6일과 18일 삼천문화의집 및 야외에서 문화인문콘서트 삼천 '밧줄은 공간을 상상한다'를 열었다. 놀이터 디자인의 역사와 밧줄그물로 만드는 놀이터에 대한 강의에 이어 밧줄 그물짜기와 숲 밧줄놀이 기구 만들기 실습이 있었다.



2017년 9월

28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주요내용은 사업 및 예산계획, 삼천마을축제의 홍보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2017년 10월

'2017 삼천마을축제'를 삼천도서관 옆 거마공원에서 개최했다. 프로그램으로는 '풍이페스티벌'과 '우리동네 일상 박물관', 생활문화난장 '개나리장터', 삼천동 초·중·고 공연 동아리들의 무대공연 '슈퍼스타 삼천', '재활용 나눔장터' 등이 마련됐다.

2017년 12월

19일 프로그램 강사 2차 간담회가 열렸다. 2017년 프로그램 운영 평가, 2018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28일 4/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주요내용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이 전주 초록도시 공모전에서 장려상 수상 성과, 2017년 민간위탁 경영평가에서 5개 문화의집 중에서 삼천문화의집이 가장 우수한 성적 축하 등이 논의되었다.



2018년 3월

30일 1/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논의와 기타 의견으로 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필요 등이 논의되었다.

2018년 6월

27일 2/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주요내용은 농진청 사업 중 '교육농장' 사업 추천, '주민 솔루션' 사업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2018년 7월

7월 27일 '문화가 있는 날'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동아리 공연과 삼천사람-시민예술가 공예공방이 참여하는 '삼천 개나리장터'가 삼천문화의집에서 열렸다.

2018년 8월

여름방학 프로젝트 '화목한 일상&공예'가 8월 7일과 21일에 열렸다.

2018년 9월

19일 3/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주요내용은 4/4분기 사업 및 예산계획, 2018 삼천마을축제 등이 논의되었다.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삼천동 거마공원에서 '2018 삼천 마을축제'가 열렸다. 프로그램은 '꿈이페스티벌', '삼천 박물관', '함께하는 지역문화'이다.



2018 삼천마을축제&장터 유익하게 즐기는 TIP

— 하나. 올해는 삼천마을축제와 삼천동 마을장터가 한날 한시에 삼천 주민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삼천마을축제&장터를 만끽해주세요—

— 둘. 삼천마을축제&장터에 오면 **공이뱅크**를 찾아주세요~!! '공이 사용처'에서는 공이화폐가 필요하니까! 공이뱅크에서 현금으로 '공이화폐'를 구매하고 현금처럼 사용해주세요~

— 셋. '삼천 낚시대회'와 '청년 수작(手作) 놀이터', '나만의 보물전시회' 등을 통해 **공이화폐**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이 배스터벌	삼천 박물관	함께하는 지역문화
일상을 예술로! '생활문화동아리 공간' ..삼천지역 생활문화동아리의 멋진 무대공연 소개합니다! '우리동네 스테이지' ..지역 아동 및 청소년, 성인들이 직접 발전무대 댄스댄스댄스! '슈퍼스타 삼천' ..지역 청소년 댄스공연단체로 관객 심사에 경쟁 공유취향! '삼천 합창 동아리' ..지역 합창단 10여개팀이 노래를 부르며 할 수도 있는 ..활거를 함께 나누는 베타공연 하기를 달려들! '우리동네 공이마켓' ..음식, 담금, 떡볶이, 도자기 등 주민부부의 다양한 사색과 기쁨에서 문명하는 커피와 저음 음악이 흐르는 사도상 있는 공이마켓 ..지역인들부터는 가져오신 본래는 커피와 저음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초록별 '맛있는 마을' ..삼천동 10여개 마을에서 키운 채소와 채소 및 맛있는 마을 농산물 나와 나의 연금과리 '청년 수작(手作) 놀이터' ..동네 청년들이 재능을 이용한 그룹놀이, 상조지구조를 활용한 스톤 놀이터 운영	삼천공예 '삼천 전시와 생활공예페스티벌' ..삼천사람 사색예술가의 일상이 담긴 작품 전시·판매, 공예체험 단소음악 '전북삼천 공작품 수작전(手作展)' ..아이들 사색하는 전북삼천의 공작품 공예 수작 전시 군부대 '이동방의 열기구페스티벌' ..최근전사단 전경과 화력대 장병들의 열기구와 함께한 문화예술교육수업 작품 전시회 삼천을 구하라! '삼천 낚시대회' ..우리동네 보물한 삼천의 토종 어종을 구획하는 지역민들을 자극하여 사색로 화제하고 공이화폐로 상금으로 받으세요! 우리동네 '열린 동아리' ..지역 청소년 및 성인 동아리 활동 체험 우리동네 '올작하는 가족사관'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순간을 무료로 촬영해서 가족사관으로 전시 및 전시 특별한 공간 '나만의 보물전시회' ..나와 함께하는 나만의 보물을 가져오신다면, 사진으로 찍어오시면 즉시 현장에서 전시해드리고 무료로 공이화폐도 드려요!	함께하는 지역문화 삼천동 마을장터 ..삼천동 지역주민이 직접 지은 농산물과 가공품, 수공예품을 사고 팔고 나누는 장터 마을을 그려라 '전북삼천 공작품 수작전(手作展)' ..삼천동마을민들 거주민들의 삼천동 마을 그림(드로잉) 전시회 한주형 삼천문화의 집 '전주와 만나다' ..내용으로 직접 제작하여 '만나다'와 '만나다', 작은 책과 등 록예를 만들고 삼도 발자 작은 예쁜산의 도록이 손잡이 있소니 전체 여덟지 않아요~ #1종이는 한글 500원, 2종이는 한글 1,000원입니다. #3'삼천동 마을장터'는 내내에도 매일 아침까지 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열립니다. (문의 : 010-9899-9904) #4'전주와 만나다'는 전주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예정입니다. (신청: www.jic.or.kr)

※ 공이화폐는 거래금과 현금에서 사색하고 있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열기구와 마을축제 화력으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7일 4/4분기 운영협의회가 열렸다. 주요내용은 2018년 사업평가, 2019년 사업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2019년 2월

봄방학을 맞이하여 만화와 웹툰 제작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전! 만화가' 기획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9년 5월

'삼천초록별축제'가 4일 삼천동 거마공원에서 열렸다. 이 축제는 삼천사람과 삼천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움직이는 가족 사진관', '생활공예 체험부스', '삼천 낚시경연대회', '초록별 끼 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5월부터 11월까지 '삼천사용설명서 #1. 삼천공방'을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의 문화를 함께 기록하고, 동네의 잠재적 문화자원의 발견 및 재구성을 통해 지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삼천동 일대에 위치한 공방들을 대상으로 아카이브를 진행했으며 시그니처를 제작하였다.



2019년 6월

전주문화의집이 공동으로 기획한 2019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축제가 6월 1일 삼천동 거마공원에서 열렸다.



2019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19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으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우리들의 몸짓 이야기’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했다. 삼천지역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7월에서 8월까지 여름방학 놀이프로젝트 ‘공예 놀이 반짝, 훌라훌리 뽀짝’을 열었다.

삼천동 친구들 모집

우리들의 몸짓 이야기

2019.07.20.(토) ~ 12.14.(토)

몸짓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 자신과 나의 주변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고,
우리들의 공통사인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모집기간
· 2019. 07. 10(수) ~ 07. 17(수)

모집방법
· 전화모집 (기획홍보팀 063-224-3088)

일시
· 2019.07.20(토)~12.14(토) 09:30~12:30
*매주 토요일 (총20차시)

장소 · 삼천문화의 집

대상 · 초등학생(3학년~6학년) 총 15명

교과비 · 무료

문의 · 삼천문화의 집 TEL.063-224-3088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 전라북도, 삼천문화재단
주최: 삼천문화의 집



2019년 8월

8월 24일 삼천문화의집 앞 공영주차장에서 '삼천 야夜한 마켓'을 열었다.



2019년 9월

삼천2동 주민센터 쉼터공원에서 삼천동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축제인 ‘한여름 밤의 크리스마스’를 열었다.



2019년 10월

삼천동 거마공원에서 ‘2019 삼천마을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에서 ‘삼천사람’ 주민기획단과 시민이 ‘Love and’를 주제로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이페스티벌’과 ‘삶천 박물관’이다.

2019년 11월

7월부터 11월까지 ‘삼천동 만남양조장, 우리네 만남을 빚다’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삼천동 주민들에게 친근한 ‘전통주’라는 매개를 활용해 문화의집 이용자들의 소



통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총 5회의 ‘만남 양조장’ 워크숍과, 1회의 ‘만남 부스’를 운영하였다.



2020년 1월

12월까지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삼천문화의집을 운영했다.

12월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가 위탁수탁자로 선정됐다.

3. 삼천문화의집 공간의 변화

1) 2015년 이전 삼천문화의집 공간



시청각실(16㎡)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화 A/V실(21㎡)

문화예술강좌와 악기 동아리 연습 및 활동 공간입니다.



문화 관람실(57㎡)

각종 교육 및 회의 공간으로 공예나 만들기 프로그램 또는 문화단체나 동호회의 회의공간입니다.



문화 창작실(33㎡)

문화예술강좌와 동아리 연습 및 활동 공간입니다.



문화사랑방(24㎡)

독서 모임, 동아리 모임 등 소규모의 모임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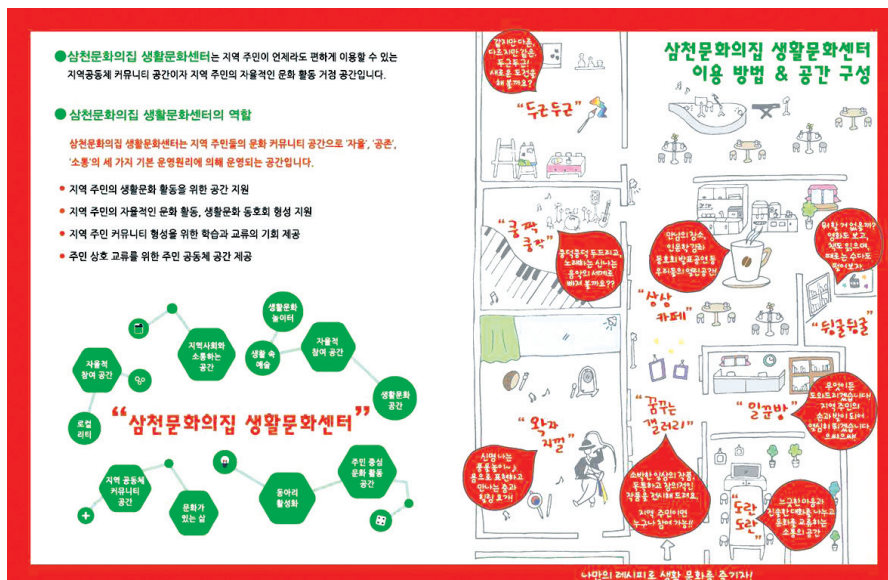
안내데스크 및 사무실(19㎡)

문화의집 시설 이용을 안내 공간과 일반사무업무를 보는 사무실입니다.

2) 2016년 이후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공간

2015년 9월 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문을 연 삼천문화이집 삼천생활문화센터는 누구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두근두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쿵쾅쿵쾅’, 풍물놀이를 배울 수 있는 ‘와자지깰’, 소박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꿈꾸는 갤러리’, 누구나 편히 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도란도란’, 만남의 장소인 ‘상상카페’,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 수 있는 ‘뽕굴뽕굴’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삼천문화의집만의 자랑거리는 ‘상상카페’와 ‘꿈꾸는 갤러리’이다. 상상카페는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음료, 다과를 즐길 수도 있다. 또한 이동파티션을 이용하여 작은음악회, 인문학 콘서트까지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꿈꾸는 갤러리’는 지역 주민작가 및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곳이다. 이 공간은 지역의 공예, 공방, 리폼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주민간의 교류를 위한 곳이다.





삼천문화의집 전경

삼천문화의집 전경



야외마당

- 야외에 마련된 휴식공간
- 활용 : 공예체험 및 전시



꿈꾸는 갤러리

-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지역주민의 수공예품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가들의 개인전, 지역주민이 손수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공간
- 활용 : 주민작가전, 지역 공방 개인전, 단체전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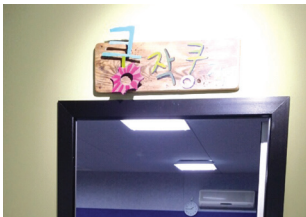
상상카페

- 지역주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를 들러 차 마시며 편하게 쉬게 하고자 함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들, 강좌, 더 나아가서는 무용, 춤, 음악공연까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공간
 - 활용 : 열린 교실, 작은 음악회, 작은 영화관, 아트마켓 등 열린 공간으로 활용
-



두근두근

-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서예, 영어강좌와 같은 강의와 수채화, POP 등 손으로 만드는 수 공예품을 만드는 모임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
- 활용 : 영어교실, 서예교실, 공예교실, 캘리그래 피 교실 등으로 활용



쿵쾅쿵쾅

- 밴드, 오카리나, 통기타 등 소리를 위한 공간으로 쿵쾅쿵쾅 두드리고, 신나게 노래하는 공간.
- 밴드 동아리, 통기타 동아리 등 악기연습과 관련 된 활동으로 활용



왁자지껄

- 신명나는 풍물놀이, 몸으로 표현하는 춤, 건강을 위한 요가까지 몸을 움직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 활용 : 풍물교실, 요가교실, 한국춤 등 역동적인 활동들로 활용



뒹굴뒹굴

-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도시락 먹으며 수도도 떠는 삼천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휴식 공간
- 활용 : 평상 영화관, 작은 책방, 공부방, 휴게공간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



도란도란(회의실)

- 느긋한 마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문화를 교류하는 소통의 공간.
- 활용 : 프레젠테이션, 회의, 간담회 등 모임활동 으로 활용



도란도란(회의실)

- 느긋한 마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문화를 교류하는 소통의 공간.
- 활용 : 프레젠테이션, 회의, 간담회 등 모임활동으로 활용



일꾼방(삼천문화의집 직원사무실)

- 문화의집 시설 이용안내 및 각종 프로그램/동아리 등록절차 안내



간이주방



효자문화의진전



주요활동

1. 기초 문화예술교육

1) 삼천문화의집과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의집은 국내의 문화공간 조성 역사에서 최초의 생활권 중심의 문화시설이다. 문화의집은 문화의 민주화와 자율적 참여를 통한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소이자,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개개인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성 발현의 공간으로, 나아가 주민들의 문화창작 욕구를 증진시키고,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문화의집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화의집은 지역문화예술의 자생적 토대를 형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체험의 공간으로, 지역의 자율적이고 기초적인 문화역량을 추적하는 공간으로 지역문화 환경 조성 및 지역문화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의집이 ‘생활 속 문화체험 공간’으로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시작점이자 동력이었다. 삼천문화의집은 2001년 개관부터 주민들이 문턱 없이 언제나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건강·스포츠, 음악·미술, 취미·공예, 언어, 어린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강좌가 넘는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했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개인의 향유·체험·교육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면서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졌고, 지역 공동체 참여 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년간 삼천문화의집 기초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4년 이전의 운영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현황, 운영 프로그램 변동 현황, 프로그램 별 참

여자 현황, 동호회 참여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할 수는 없다. 2013년까지의 현황은 언론기사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2014년 이후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현황을 서술한다.

2) 삼천문화의집 기초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역할

삼천문화의집은 삼천동 주택가 중심에 있는 삼천2동 동사무소 2층에 자리를 잡고 시작하였다. 삼천문화의집 장소는 개관 이전에 동사무소 2층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장소였던 만큼 지역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장소였다. 개관 초기 기초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주택가에 자리 잡은 공간의 특성을 살려 30~40대 주부층과 어린이·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2001년 개관 당시 한지공예, 생활컬트, 직장인 사물놀이, 문예창작, 스포츠댄스 등 16개 과정의 상설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상설프로그램은 삼천문화의집을 문화예술과 친교, 인정이 오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작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되었다. 상설프로그램은 2001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20개 내외의 강좌가 매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상설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배운 실력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상설프로그램 수강생, 삼천문화의집 동호회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삼천문화의집 프로그램 발표회’를 삼천둔치에서 개최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프로그램 수강생, 동호회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가들과 함께 ‘한여름밤의 꿈’을 개최했다. 2014부터 2019년까지는 삼천동 마을축제인 ‘세네축제’에 참여했다. 삼천문화의집의 기초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상설 프로그램 이외에 방학 특별프로그램, 기획특강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이 있다. 동호회 활동은 삼천문화의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삼천문화의집은 개관초기부터 어머니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1년 9월부터 시작한 ‘주부들을 위한 화요 영화감상’은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외에도 ‘주부들을 위한 건강상담’(2001) ‘주부들을 위한 일본어 기초회화 무료 강좌’(2002), ‘엄마와 함께하는 도자기 현장체험’(2003)등을 진행했다. 2005년에는 ‘혼불문학관으로 떠나는 문학기행’과 ‘태백산맥의 흔적을 쫓아 녹차와 함께하는 테마 문학기행’을 떠났다.

무엇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예술가와 연계한 미술프로그램, 삼천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 삼천천, 거마공원, 맹꽁이를 연계한 생태 프로그램 등은 삼천문화의집만의 고유한 성과라 할 수 있다.

3) 삼천문화의집이 진행한 어린이 프로그램

행사명	일시	행사내용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2001.12 2002.7 2002.12	• 전통문화교실(전통한지공예 체험교실, 한지 민속 부조 교실, 우리민요와 춤배우기, 전통예절과 현대식 매너 익히기) • 일반교실(생각하는 글쓰기 특강, 손뜨개 교실 등)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2003.8	• 단청체험학습(한국박물관연구회)
미술아 놀자!!	2005.5	• 서양화가 임택준과 함께한 놀이식 미술체험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2005.5	• ‘학교 안가는 날’을 맞아 좋은 책 나눠읽기, 칼라믹스, 종이접기, 도예체험, 한옥마을 탐방 등 진행
신문기자가 되고 싶어요	2005.8	• 어린이들이 기사를 직접 작성·편집해서 가족신문과 학급신문 제작
꿈을 찾는 별자리 여행	2005.8	• 충북 보은군 서당골 천문관측대 탐방
터널 속 대탐험	2006.5	• 미술가와 함께 하는 꿈이 있는 놀이터

행사명	일시	행사내용
특별한 여름나기	2006.7	• 어린이 노래방, 방학숙제119, 장남감 병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민화그리기 등
창의력과 상상력이 커지는 리폼교실	2007.4	• 설치미술가 장하영과 함께 진행
우리동네 소장품전	2007.9	• 어린이 큐레이터가 소장가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그림을 모아 전시회 개최
소장품 탐험대	2008.4	• 어린이들이 동네를 찾다니며 주민들의 소장품 을 발견하고 전시까지 개최
아이들이 바라본 우리동네 글과 그림전	2009.11	• 삼천동 아트데이 주민기획단이 개최한 '삼천동 아 트데이' 프로그램
토요일N문화놀이터	2010.3	• 퀼트와 색실을 이용한 리폼 교육
세내 아이들의 놀이터 삼천	2010.7	•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함께 한 가족 생물교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2010.8	• 모악산 이야기, 용기 이야기, 백중이야기
이야기를 담은 숲	2010.11	• 삼천남초등학교, 문화의집 근처 미술학원 학생들이 이 참여한 공공미술작업
우리마을 이야기 탐방	2011.8	• 삼천동 용산마을(기점놀이), 원종인 마을의 백중 놀이 탐방 및 체험
여름방학 특강프로그램	2013.7	• 역사논술, 교육미술, 단소교실
우리동네 초록별이 자란다 시즌 1	2014.3	•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으로 아이들이 직접 예술텃밭과 꽃밭을 가꾸는 프로그램
겨울방학 프로그램	2015.1	• 어린이 미술, 어린이 만화교실
우리동네 초록별이 자란다 시즌 2	2015.4	•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우리동네 초록별 즐거운 텃밭	2017.4	•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으로 지역의 유 휴공간을 활용, 텃밭을 가꾸고 다양한 예술활동과 놀이교육 진행
우리동네 초록별 텃밭놀이터	2018.4	•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삼천초록별축제	2019.5	• 움직이는 가족 사진관, 생활공예 체험, 삼천낚시 경연대회, 초록별 끼 한마당 등 진행
우리들의 몸짓 이야기	2019.7	• 몸짓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동네 이야 기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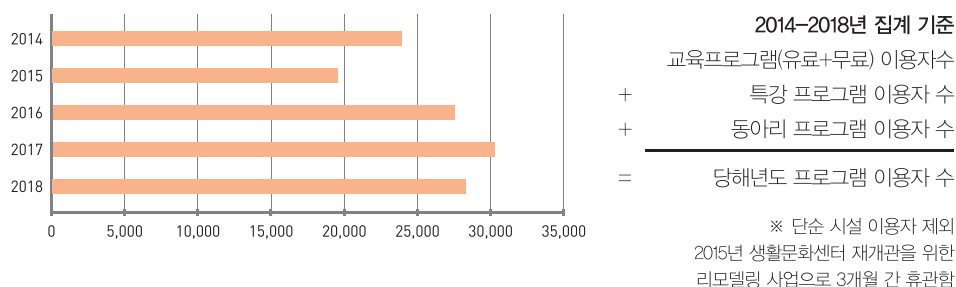
4) 삼천문화의집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현황

(2014~2018)

2013년 이전까지는 삼천문화의집 기초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의 변동, 운영 실적, 참여자 현황, 동호회의 변화 등을 분석할 수는 없다. 다만, 2014년부터는 연도별 정산서, 감사자료, 운영실적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토대로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2019년도는 삼천문화의집 수탁단체의 문제로 인해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동호회 참여자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은 단순 시설이용자와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를 제외하고 순수 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 프로그램 이용자만을 집계하였다. 2015년 생활문화센터로 재개관한 이후 기획 프로그램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이용자 수의 비중도 함께 커졌는데, 삼천문화의집 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특성상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를 연간 누계로 환원하여 적용하였고 구간별 집계기준은 그림 우측에 따로 밝혀 둔다.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2014~2018



5) 삼천문화의집 주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014~2019)

2014 삼천문화의집 상설프로그램

* 모든 프로그램은 재료비 별도입니다.



구분	프로그램	요일	시간	수강료	강사	
건강 스포츠	건강요가A	월·수·금	09:30~10:30	3만원	박정미	
	건강요가B		10:30~11:30			
	건강요가C(아간)		18:30~19:30			
	벨리댄스(초급)	수	15:00~15:50	2만원	김승은	
	벨리댄스(중급)	수·금	14:00~14:50 15:00~15:50	3만원		
	발송·댄스(초급)	토	10:00~11:00	2만원		김연화
얼굴~ 전통예술	발송·댄스(중급)		11:00~12:00			
	한국무용(초급)	화·목	15:00~16:00 14:00~15:00	2만원	소보영	
	한국무용(중급)					
	시조와송	화·금	12:00~14:00 13:00~15:00	3만원	김가영	
	천년의 소리 만파식적(대급)	화	18:00~20:00	3만원	김지훈	
	理判事判 소리만	화	18:00~19:30	3만원	송봉금	
	사물놀이(전문과정)	화·목	19:30~21:00	3만5천원	신세호	
	아름다운 올림	기타(입문)	화·목	17:00~18:00	7만5천원 (3개월)	윤원진
		기타(초급)A	화·목	18:00~19:00	2만5천원	
		기타(초급)B		19:00~20:00		황상진
기타(중급)		금	19:00~21:00	2만5천원		
기타(고급)		화·금	10:00~12:00	3만원	고혜숙	
바이올린		월	18:30~19:30	3만원		
하모니카		금	16:00~17:30	3만원	김정숙	
우크렐레A		토	11:00~12:00	3만원	김세영	
하늘소리 오카리나A		토	10:00~11:00	3만원	김세영	
손으로 만드는 세상		우크렐레B	월	11:00~12:00	3만원	민한주
	오카리나B	월	10:00~11:00	3만원		
	김수연 색소폰 ('장목조와 고인물' 멤버)	수	14:00~16:00	5만원	김수연	
	박찬영의 색소폰 교실	목	16:00~18:00	5만원	박찬영	
	뷰티	예쁜손글씨 POP A	목	10:00~11:30	3만원	박천미
		예쁜손글씨 POP B	금	10:00~11:30	3만원	최상귀
꿈을 접는 종이접기·북아트		목	09:30~10:30	3만원	오봉례	
한지민속그림		월	10:00~12:00	2만원	유미	
어학	장영미의 비누·칠 놀이터	화	10:00~12:00	3만원	장영미	
	셀프 메이크업 동안 스킨케어	화	09:30~12:30	3만원	국경민	
여행	리사의 영어스토리텔링	금	09:30~10:30	만5천원	맥리사	
	천자를 갖고는 천자를 읽기비법	목·금	19:30~20:30	3만원	나영근	
생태	모악숲사령(생태연구반)	금	10:00~12:00	20만원 (5개월)	노티샘	
	몸과 마음이 속속! 어린이 어린이	오감발달 종이접기·북아트	목	17:30~18:30	3만원	오봉례
어린이만화교실		금	17:00~19:00	3만원	권혜연	
붓놀이·서예·문인화		토	14:00~16:00	4만원	김효정	
어린이 재즈댄스		월·수	16:30~17:30	3만원	김연화	
어린이드림		화	18:30~19:30	3만원	박인영	
영재유치아카데미		월	16:30~17:30	3만원	김행남	
특별한 만남 기획	속물이 통물	목	10:00~12:00	만원	최기춘	
	얼마 연극한다 ~ 엄마랑 아이랑 함께하는 원예치료	수	15:30~16:30	만원	백진화	
		화	16:00~17:30	6만원	김순주	

주소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49

문의 Tel:063-224-3088 Fax:063-224-3089 http://3000.jicp.or.kr cun3000@hanmail.net

2013년 이전까지는 삼천문화의집 기초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의 변동, 운영 실적, 참여자 현황, 동호회의 변화 등을 분석할 수는 없다. 다만, 2014년부터는 연도별 정산서, 감사자료, 운영실적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토대로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2019년도는 삼천문화의집 수탁단체의 문제로 인해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동호회 참여자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은 단순 시설이용자와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를 제외하고 순수 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 프로그램 이용자만을 집계하였다.

2015년 생활문화센터로 재개관한 이후 기획 프로그램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이용자 수의 비중도 함께 커졌는데, 삼천문화의집 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특성상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를 연간 누계로 환원하여 적용하였고 구간별 집계기준은 그림 우측에 따로 밝혀 둔다.

삼천문화의집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되었던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장르별 기초문화예술- 상설프로그램(2014~2020)

장르	프로그램명
건강 스포츠	건강요가
	밸리댄스
	방송재즈댄스
	한국무용
	시조와 춤
여학	영어스토리텔링
	영어보드게임
	천자문 암기비법
	영어회화

장르	프로그램명
음악/악기	대금
	사물놀이
	기타(초·중·고급)
	바이올린
	하모니카
	우쿨레레
	오카리나
	섹소폰
	속풀이풍물
	드럼
	비바밴드
취미/공예	POP 손글씨
	종이접기·북아트
	한지민속그림
	바늘질놀이터
	메이크업 동안 스킨케어
	한지민속그림
	한글서예
	보태니컬 아트
	모악숲사랑
	원예치료
	한국화
어린이	챗클럽
	어린이 재즈댄스
	어린이 바이올린
	어린이 만화교실
	붓놀이·서예·문인화
	종이접기·북아트
	어린이 드럼
	영재뮤직아카데미
	어린이공예교실

2. 동아리 활동

“한 책을 다 읽으면 회원들에게 수료증을 줬어요. 사실 영어로 소설 책 읽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계절마다 한 권 읽었어요. 다 읽으면 온라인으로 수료증을 보내줬어요.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어떤 회원은 수료증을 프린트해서 자기 학원 벽에 걸어놓기도 했어요.”

Book-banter 맥리사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생기면서부터 우리 가정주부들의 삶의 질이 엄청 좋아졌어요. 나는 그걸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 같으면 뭘니까, 그냥 잡다한 모임이나 하고 먹기 모임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주부들보세요. 문화의집 생기면서부터 주부들이 전부 뭐라도 한 번 해 봐야겠다, 그런 동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막힌 겁니까! 저는 문화의집의 가장 장점이 라면 그걸 뽑고 싶어요. 우리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여기 와서 적은 비용으로 또 어떤 데는 무료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건 기막힌 거예요.”

만들린 앙상블 동아리 양노섭

“연말에 저희가 여기서 별도로 우리 팀만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그랬었어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아리하고 같이 콜라보로 하니까 작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가 관객도 되어 주고 함께 연주하니까 같은 곡으로 연습 몇 번 맞추면 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악기 구성이 두 배가 되니까 음악은 훨씬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만족했고 그 선생님들도 만족하셨을 거예요. 관객 또한 좋아들 하시고 그런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칸타빌레 만들린 오케스트라 박경애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학원 같은 경우 사실 힘들죠. 비용 때문에 여기는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다

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참 장점이죠. 저는 권장해요 주위 분들한테 본인 의지가 있으면 모든 할 수 있으니까.”

칸타빌레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박경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며 팀원 간의 친목, 소통이 아주 좋았으며 행복한 호르몬이 분비되다보니 가정에서도 즐겁게 살고 가족들이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회원들 모두 자신감이 생겨서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산답니다.”

누리고고 장구 동아리 회원

“맘마미아 동아리 회원들의 나이가 70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의 장점과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갱년기를 겪고 있는 회원들이 많았는데 모임을 통해서 갱년기를 좀 더 순조롭게 겪으므로 생활에 활력이 생겨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맘마미아 황해순

“저는 10년 전이니까 63에 동아리를 시작했어요. 퇴직하고 시작했어요. 퇴직하고 집에서 있는 분들은 어떤 동아리든지 직장 때문에 평소에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동아리 통해서 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취미활동을 통해서 그 재능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고 자기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젊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질 수 있다는 것.” **민들레 찾아가는 전통무용단 최병길**

“삼천문화의집은 저희 동아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샘터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해준 곳이죠!” **북소리 동아리 회원**

“저희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집은 감사의 장소입니다. 친구들끼리 소통할 수 있고, 재능기부 할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천달 동아리 회원**

“처음 활동했던 동아리의 애정과 현재의 강사선생님을 초빙했던 책임감으로 활동해왔고, 회원들의 변동이 있었으나, 지금은 회원들의 도움으로 동아리가 장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동아리는 대표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회원들의 마음과 협조가 먼저 있어야 동아리가 장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록빛 수채화 신미경

“청록빛 수채화 동아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활력을 주었고, 동아리 회원들과의 만남도 사회적 관계형성에 따뜻함을 주는 좋은 맺음으로 기억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청록빛 수채화 이용숙

“동아리활동으로 인해 게을러지기 쉬운 주말아침이 부지런해졌어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이었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 연령대와 섞여 배울 용기도 배울 곳도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청록빛 수채화 동아리를 통해 모든 고민이 한방에 해결되었어요.” 청록빛 수채화 김수영

“매주 토요일 동아리에 오기 위해 준비하면서부터 설레임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로망이었던 미술을 배우고 그리게 되어 내 삶은 충만해지고, 내 행복은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청록빛 수채화 양혜연

“토요일이 즐거워졌어요. 그림을 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고, 내 안의 다른 모습을 찾아낸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삶의 질이 충만해졌어요.” 청록빛 수채화 서철심

“주말에 무료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에도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삼천문화의 집에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졌어요.”

청록빛 수채화 임문순

“그림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 새삼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청록빛 수채화 양희영

“그림 그리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배려하고 노력하다보니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동아리 모임이 마음속에 기쁘고 보람 있는 일로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청록빛 수채화 조경아

“삼천 캘리그래피부 、서예 、문인화부의 활동은 취미로 일주일에 한번 배우는데도 공모전인 전북미술대전 、온고을 미술대전에서 특선 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 삼천캘리그래피 김효정

“정년퇴직 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만나지도 않고 껴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악기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1회 활동이 기다려지는 것은 그만큼 인생 후반기의 삶에 활력소가 되고 도전과 성취감이 만족감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댄디피플 동아리 회원

“삼천문화의집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서로의 정을 돈독히 해주는 장소!” 청우림 동아리 회원

“회원 간에 끈끈한 정과 나이가 있다 보니 우리들끼리 한국무용 실력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별로 강사님을 초청해 수업을 배우고 있어요. 나날이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춤사랑 동아리 회원

“탈머리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 집은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회원이 근무하는 학교 공간을 이용하여 연습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공간마저 없어졌기에 삼천문화의 집은 탈머리 동호회 회원들에게 아주 필요하고 귀중한 곳입니다. 아울러 삼천문화의 집은 탈머리 동호회의 희망의 공간입니다. 회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가꾸고 키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탈머리 동아리 회원)

“제가 가톨릭 신자로서 표현하자면 삼천문화의집은 저희에게 천당과 같은 곳입니다. 예전 활동할 당시 지하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직접 물을 퍼내고, 냉난방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냉난방비도 스스로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비하면 시설이 다 갖추어진 삼천문화의집은 천당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태극권 동아리 회원

“이걸 시작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피드백이 되는 거 같아요. 일상에서나 업무나 사업이나 집안이 됐든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활력소라고 할까요.” 풍남문 친구들 박민규

1) Book-banter

동아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맥리사 2014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원래는 집에서 했어요. 지금은 그전부터 시작한 멤버가 다시 돌아왔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모임을 가져요.

어떻게 결성된 거예요?

맥리사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 더 높은 단계로 영어책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책모임을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꾸준히 만나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맥리사 좋은 기억은 회원들을 주마다 계속 만나면서 시작하기 전에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서로 더 친해지니까 그 사람의 행복도 같이 즐기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때론 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지만요.

동아리에서 어떤 대회를 나가거나 봉사 활동 한 것이 있었나요?

맥리사 회원들이 다들 바쁘기도 했지만, 영어 책 읽기 모임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대신 한 책을 다 읽으면 회원들에게 수료증을 줬어요. 사실 영어로 소설 책 읽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계절마다 한 권 읽었어요. 다 읽으면 온라인으로 수료증을 보내줬어요.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어떤 회원은 수료증을 프린트해서 자기 학원 벽에 걸어놓기도 했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맥리사 진짜! 회원들이 영어로 책읽고 대화를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받아야 좋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이나 회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하네요.

맥리사 아마 회원들은 외국 소설책을 읽으면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넓어질 수도 있고, 또 회원 중에서 자기 친구를 데려 온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 차가 있는데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같이 어울리 수 있는 건 좋은 거죠.

맥리사 그렇죠. 이 모임은 나이 차이가 많아도 같이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임이에요.

20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7년이 됐는데, 상당히 오래 활동한 거잖아요. 이 모임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맥리사 회원들이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임이 전주에 많지 않고, 게다가 소설책을 읽는 모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회원들이 영어를 많이 공부해서 그런지 뭔가를 하고 싶어 했어요. 말도 하고, 쓰고 싶고, 게다가 저희가 읽는 책이 재밌어요. 그리고 꼭 책을 읽어야 돼요.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계속 꾸준히 배워야 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는데, 책을 꾸준히 읽어야 해요.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어려워졌죠. 문화의집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맥리사 코로나가 심해지면 문화의집이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는 것보다 마스크 쓰고 방역을 지키면서 모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모임이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런 건 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의집은 공공기관이어서 시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맥리사 네. 어쩔 수 없다는 거 이해해요. 그럼에도 작은 모임은...

Book-banter에게 삼천문화의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맥리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영어로 소설을 읽는 모임이 있는 걸 잘 홍보해 주는 것. 왜냐하면 이런 모임이 있는지 모르면 관심이 있더라도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2) 누리고고 장구 동아리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를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활동하게 되었는지, 매주 언제 모임을 갖는지 등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누리고고 장구 동아리는 장구를 이용하여 국악과 현대음악을 접목시켜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고고장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성장 하고자 하는 동아리입니다. 2019년3월 호야고고장구로 시작했고 11월에 누리고고장구로 재편성했으며 매주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이용했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용할 수 없다 하니 무척 아쉽습니다.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2019년 삼천문화의집 주최 발표에 참가했었고 막걸리 축제에도 참가했었으며, 전주기집놀이 연말자축연에도 선을 보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삶의 질이 높아졌다면지,

새로운 관계 형성과 사회활동으로 삶에 또 다른 영향을 미쳤다면지.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며 팀원 간의 친목, 소통이 아주 좋았으며 행복한 호르몬이 분비되다보니 가정에서도 즐겁게 살고 가족들이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회원들 모두 자신감이 생겨서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산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오랜시간 동안 활동하게 된 이유와 동아리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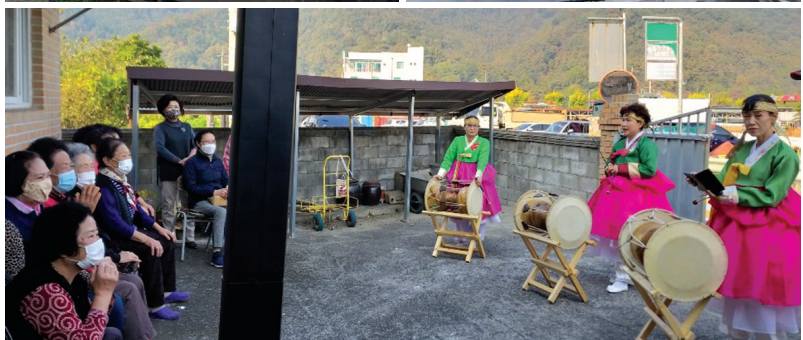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올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동아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 좋겠네요

누리고고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고향이지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설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환경도 열악하고 비용도 높아서 안타깝네요.



3) 칸타빌레 만돌린 오케스트라&만돌린 앙상블

먼저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합니다.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를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활동하게 되었는지, 매주 언제 모임을 갖는지 말씀해주세요.

박경애 칸타빌레는 처음에 오케스트라로 출발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무색해요. 많던 회원들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요즘에는 열 분 정도 밖에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챔버오케스트라 그 수준인데 악기는 다양해요. 만돌린, 만돌라, 키보드, 기타, 베이스 기타도 있어요. 2006년에 여기 삼천문화의집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은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양노섭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장수한 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저는 그동안 회장직을 오래 맡고 있다가 최근에 회장직을 다른 분께 물려드리고 저는 악장직을 맡고 있거든요. 뒤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이에요.

양노섭 저희 벽오동 만돌린 앙상블 소개를 합니다. 저는 지도를 맡고 있는 양노섭이구요, 만돌린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태리에서부터 시작한 정통악기입니다. 클래식 악기였고 바이올린에 눌러서 살다가 이제 악기가 다분화 되다보니까 숨통을 들고 일어났는데, 들어보시면 악기소리가 아주 애잔하고 마치 청소년들이 합창을 하는 애잔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즐겨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연주곡은 클래식부터 세미클래식, 팝, 가요, 우리나라 가곡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못 다루는 곡이 없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2019년 3월부터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회원 수가 적고 앞으로 기대는 크지만 무엇보다 회원들 모집이 아주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어떻게 활동하게 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히스토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발전해서 동아리까지 되신 거잖아요? 활동을 매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양노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작년에 상설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삼천문화의집에서 연주회가 있었어요. 저희들의 첫 연주회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더군다나 회원들이 잊지를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간에 많이 쉬는 바람에 그 부분이 서운하다면 서운했던 부분인데 우리 삼천문화의집 직원들이 너무 저희를 잘 돌봐주고 계셔서 오늘이 있지 않은가 서운한 건 전혀 없습니다.

박경애 덧붙이자면 저희가 문화의집 행사가 항상 많잖아요. 1년에 몇 번씩 참석하고 저희가 보람을 느꼈어요. 회원들도 좋아하시고 우리가 공부만하고 매주 연습만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장,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초대를 한다거나 기꺼이 달려와서도 하지만 특히나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자체적인 행사가 1년에 몇 번씩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공감도하고 연주도 하고 참 보람이 느껴졌고 특히 그 전에는 세계소리축제가 전주에서 10월에 열리잖아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매년 프린지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었어요.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박경애 3-4년 전까지 참여했어요. 그 해부터 한 번 연이 닿으니까 계속 콜이 와서 저도 거기다 신청을 해서. 그때는 너무 정말 행복했어요. 큰 무대고 그러니까. 1년 내 10월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봄부터. 10월, 9월에 행사

열리고 목표라고 할 건 없었어도 그런 장이 있으니까 좋았어요. 참 보람이었던 거 같아요. 언제부터가 축소가 되서 동아리들이 프린지를 안 받았었어요. 그때 아쉽기는 아쉬웠어요.

그럼 삼천문화의집에서는 서운했던 점이 없는 거네요?

박경애 없지요. 항상 저희는

양노섭 박경애 악장님이 잃어버린 게 있는 모양인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작년에 칸타빌레하고 하모니카하고 콜라보로 여기서 했었는데 그때 연주가 불과 한 번 맞춰봤나? 그런데 두 곡 연주 같이 했거든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박경애 저도 그런 말씀 드리려고 여기 적어놨었어요. 연말에 저희가 여기서 별도로 우리 팀만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그랬었어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아리하고 같이 콜라보로 하니까 작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가 관객도 되어 주고 함께 연주하니까 같은 곡으로 연습 몇 번 맞추면 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악기 구성이 두 배가 되니까 음악은 훨씬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만족했고 그 선생님들도 만족하셨을 거예요. 관객 또한 좋아들 하시고 그런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박경애 진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봄부터 2월부터 거의 활동이 없었잖아요. 올해는 정말 답답했었어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할 텐데요. 다음으로 각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나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하거나,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등 동아리 활동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양노섭 만돌린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경연대회는 건 없어요. 아까 우리 박경애 악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양로원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 많이 했었구요 부지기수구요. 우리가 크게 움직였던 건 뭐니뭐니해도 세계소리축제가 큰 부분이었고 그때가 범위가 컸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사소한 것들은 뭐 초청연주? 그것도 봉사연주가 겹해서 같이 그런 부분이니

까. 우리 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연주하고 끝난 상태라서 다른 생각
해볼 겨를도 없는 부분이구요.

박경애 그 팀도 어차피 기대하세요. 저희하고 목적은 하나로 가기 위한 단
계니까 일단 그쪽에서 실력먼저 갖춰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연륜이 쌓여
야 해요.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달라진 점이 있는 지 궁금한데요, 삶의 질이
높아졌거나, 새로운 관계 형성과 사회활동으로 삶에 또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

양노섭 이진 참 누가 설문지 누가 했어요? 삶의 질? 이진 제가 평소에 참
많이 쓰던 애깁니다. 이거 마음에 딱 들어요. 삶의 또 다른 영향을 미쳤다는
지요. 사실 악기가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악기를 통한 서로 상호간
의 침묵 그것도 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다음에 자기 개인의 삶 자체요. 삶이
윤택해지죠. 행복감 성취감 자부심





박경애 그리고 다른 악기와 달라서 클래식 쪽이잖아요 만돌린이 기타하고 다르잖아요. 연주하고 나면 성취감이 다른지 그런 것이 있어요.

성취감과 행복 만족감 침묵 그 이상에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네요?

박경애 자녀들에게도 정말 자랑할 만 하구요.

양노섭 덧붙여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생기면서부터 우리 가정주부들의 삶의 질이 엄청 좋아졌어요. 나는 그걸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 같으면 뭘니까, 그냥 잡다한 모임이나 하고 먹기 모임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주부들보세요. 문화의집 생기면서부터 주부들이 전부 뭐라도 한 번 해 봐야겠다, 그런 동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겁니다! 저는 문화의집의 가장 장점이라면 그걸 뽑고 싶어요. 우리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여기 와서 적은 비용으로 또 어떤 데는 무료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건 기막힌 거예요.

박경애 주부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건전해졌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먹고 놀고 고스톱치고 사우나 가서 시간 보내고 주부들이 생활이 그랬잖아요. 그런 친구들 없어요. 너무 바빠들 살아요. 어딘가 가서 배우는 한 가지 배운 분들이 많잖아요. 문화센터 가면 이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취미 생활하는 거죠. 얼마나 건강해졌어요.

양노섭 아까 말씀하셨던 삶의 질입니다. 이게, 질이 달라졌어요. 우리 초창기 2002년도 문화의집에 발을 딛기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했던 부분들이 보면 그 뒤에 엮어지는 부분들의 모든 것들이 그때만 해도 처음 시작할 때 만해도 사람들이 조금 냉소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왜 냉소적이었냐면 저거 하면 뭐해 누가 뭘 좀 배우자고 해도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달라졌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노래방 생기면서 음악 박자감 없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열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옛날에는 겨우 박자 맞출까 말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박자 못 맞출까요? 노래방이 그랬듯이 이거는 우리 지금 저기는 주부들이 질이 삶의 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자녀들도 따라오는 느낌이 되겠죠. 제가 말이 너무 긴가요?

아뇨, 말씀 감사하구요, 삶의 질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까지 했는지까지 소개해주신 거 같아요. 정말 소중한 공간이고, 없어져선 안 될 공간이고, 문화의집이 있기 이전에 내용과 이후의 삶에 모든 주부님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게 참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박경애 오케이, 좋아요. (전체 웃음) 꼭 건재해야 돼요.

양노섭 제가 지난번에 저기서도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뭘 어떻게 하고 운영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오시는 수강자들이 누구냐 그 대상자들이. 그 대상자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여기 임하느냐

우리가 가르치는 게 무엇이나, 이거잖아요. 우리가 배워가지고 돈을 벌자고 이걸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쥐가면서 취미활동을 하면서 악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받는 행복감이나 삶의 보람은 말할 거 없죠. 문화의집이 말 그대로 그거죠 문화라는 말 자체가 정말 딱 들어맞는.

박경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학원 같은 경우 사실 힘들죠. 비용 때문에 여기는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참 장점이죠. 저는 권장해요 주위 분들한테 본인 의지가 있으면 모든 할 수 있으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공간도 참 중요하잖아요. 문화의집이 그 매개가 되어주는 역할까지도 한 거죠?

박경애 그렇죠!

양노섭 핵심이죠!

만들린 앙상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동아리로 넘어가면서 신생이지만 좋은 활동을 하고 있고, 칸타빌레의 경우는 오랫동안 활동하신 동아리잖아요. 소리축제 무대도 서셨고, 삼천문화의집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활동하게 된 이유와 동아리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박경애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들이 다 느낀거죠. 이거 안하면 못살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이렇게 행복한테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양노섭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응집력이죠. 열정이라고 봐야죠. 제가 항상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요. 열정이 없으면 그 팀은 금방 식어버리고 안됩니다.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 받는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가지고, 그 열정 안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장수의 비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정과 끈기, 호흡.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양노섭 사실입니다.

박경애 네. 맞아요

삼천문화의집에서 오랜 시간동안 활동하게 되셨던 이유도 덧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경애 거의 회원 분들이 이쪽 분들이예요. 삼천동이라서 가까운 이유도 있고, 삼천문화의집 분위기가 좋아요. 큰 어려움 없이 그동안 많이 협조도 해주셨고, 동지를 틀었기 때문에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그동안 삼천문화의집이 동지역할과 보금자리 역할을 해줬던 거죠, 다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양노섭 코로나하면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취약이죠. 정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못했던 작곡, 편곡, 연습하느라 바빴습니다만, 사실상 배우는 사람입장에

서는 완전 기를 꺾는 천하의 못될 질병이죠.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럴겁니다만, 특히 악기 다루는 사람이 중간에 쉬어버린다는 것은 맥이 끊겨버려서 지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중간 중간에 개강을 하고 있잖습니까? 보편은 사람들 결석률이 많아요. 맥이 끊겨가지고 다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게 가장 큰 핸디캡이고요. 아까 우리 박경애 악장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문화의집은 너무 분위기 좋고, 우리 직원 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 누가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니까 여길 모르고 못 찾아온 사람들이 참 내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기 겨울에는 난방해주지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 틀어주지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난 참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로, 정말 땡큐죠!

박경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홍보나 이런 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회원 확보 하는데에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주변사람들 손잡고 오는 것도 그죠, 일단 홍보. 물론 홍보 신경 많이 쓰겠지만 전단지도 돌리고,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신입회원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수혈이 필요하듯이.

지금까지도 좋은 활동으로 장수해 오셨지만,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 게요. 칸타빌레만돌린오케스트라와 만돌린앙상블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양노섭 아름다운 사랑의 보금자리

박경애 그렇죠. 안방과 같은 곳이죠.

양노섭 이 이상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강사님들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같고, 여기는 프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초를 닦아주는 부분. 물론 길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기초를 닦고 자기가 소질이 있다고 인정되면 더 하고 싶으면 학원을 가든 전문기관을 가서 저기 하는 거고, 우리는 단지 기초를 닦아주면서 그 분들의 특이한 자질, 소양 이 부분을 계발을

시켜준다. 그걸 보면 이 이상 좋은 장소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푼다.

박경애 좋은 말씀 다해주셨네요, 선생님께서. 하하하. 정말 그 존재가치는 무궁무진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모르니까 못 오시는 거야. 다들.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 안 와보신 분들은.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전주시에 다섯 군데가 있어요. 동마다. 저는 삼천문화의집에서 특별하다고 느낀 게 많아요. 특히 학교 근처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노는 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책도 보고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곳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구나 아이들 위해서. 여기 와서 노니까 너무 박수쳐주고 싶어요. 그래! 이런 공간이 필요해.





4) 맘마미아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를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활동하게 되었는지, 매주 언제 모임을 갖는지 등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맘마미아 라인댄스 동아리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월, 금요일 하다가 2019년부터는 회원들이 좀 더 자주 만나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여 월, 수, 금요일 3일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문화의 집 행사에 참석하면서 회원들이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 자신의 기량이나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변화하고 성취감을 얻는 기회가 생기므

로 삶을 충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회원들이 2019년 전주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다 같이 참석하고 개인적으로는 광주대회, 광주 국제대회, 강원도 대회에 참석하여 수상을 하고, 또한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키고 준비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회를 가졌고 2019년 12월에는 전주 장애인 협회 송년의 무대에서 춤을 선보이는 봉사를 가지기도 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맘마미아 동아리 회원들의 나이가 70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의 장점과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갱년기를 겪고 있는 회원들이 많았는데 모임을 통해서 갱년기를 좀 더 순조롭게 겪으므로 생활에 활력이 생겨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오랜 시간동안 활동하게 된 이유와 동아리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회원들 간의 관계형성을 하는데 조력자가 필요해요. 누구도 나서서 하기 힘든 일을 어떤 조건이나 바램을 바라지 않고 기쁘고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이며, 또한 처음으로 춤을 접하거나 재능이 없어서 포기하려는 회원이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여 포기하지 않고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문화의 집의 공간이 비좁은 것이 조금은 아쉽지요. 그리고 창문이 없는 것이 아쉬워요.

맘마미아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맘마미아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 집은 없어서는 안 되는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5) 민들레 찾아가는 전통무용단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삼천문화의집에서 어떻게 언제 동아리를 시작하셨고 어떻게 활동했고 언제 매주 모임을 가졌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 동아리는 민들레 전통 무용단입니다. 창립은 2011년 11월 11일 그래서 지금까지 곳곳하게 이렇게 11자가 들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지탱해 온 것 같아요. 2017년 11월 1일에 지도교수 박은기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2018년부터는 새로운 지도교수 박인숙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 분은 다른 일이 바빠서 교수보다도 그냥 단원으로 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는 2014년 2월부터 여기에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연습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금요일 하루만 시간을 주셔서 오후 2시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14일에 소아진단을 마을 장애자들이 있는 곳에 봉사활동을 갔다 왔어요, 그곳을 끝으로 일흔 다섯번째 공연을 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혹시 서운했던 기억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죠, 다만 무용이라 장소가 좀 협소하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아무튼 그동안 2014년 이전에는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정착하면서 참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조금 불편하다면 부채 같은 소품이 많기 때문에 큰 수납공간이 필요한데 조그마한 곳에 넣으려니까 그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동아리 활동하면서 새로운 등지를 찾으셔서 연습할 수 있었던 공간이 가장 좋았던 점이고, 서운했던 점은 장이 필요한데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민들레 무용단만의 특별한 활동이나 아까 소개해주시면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봉사활동 내용이나 혹시 또 경연대회 출전한다든지, 동아리의 특별한 활동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누워있는 어르신들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면서 봉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교통비를 요구하거나 절대 그런 것은 없고 완전히 저희들 사비로 해서 봉사활동 합니다. 다른 봉사 단체들은 기관에서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교통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절대 지금까지 한 번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경연대회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희 동아리가 내년이 10주년이에요. 2011년이니까 내년이 10주년인데 지금까지 쭉 활동해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도소 봉사입니다. 교도소 봉사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또 JTV에서 저희들 봉사활동하는 것을 인터뷰해서 방송한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 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사업에도 한두 번 참여해서 선정된 적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경연대회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봉사가 목적이고 봉사로 끝나고 봉사로 다 합니다.

다음 질문을 봉사활동과 심층적으로 여쭙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용 활동을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10년 전에 저를 만난 사람들은 더 젊어졌다고 해요. 그것이 가장 큰 봉사활동의 이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회원들은 전부 60이 넘었어요. 저도 70하고도 플러스 3입니다. 제가 무용 동아리를 통해서 젊어졌고 또 봉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봉사를 가지만 오히려 내가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지려면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0년 전이니까 63에 시작했잖아요. 퇴직하고 시작했어요. 퇴직하고 집에서 있는 분들은 어떤 동아리든지 직장 때문에 평소에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동아리 통해서 하고 동아리 통해서 자기의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취미활동을 통해서 그 재능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고 자기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젊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진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아리가 오래 되었어요. 2011년에 창립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데 그리고 삼천문화의집에서는 2014년부터 동지를 트셔서 오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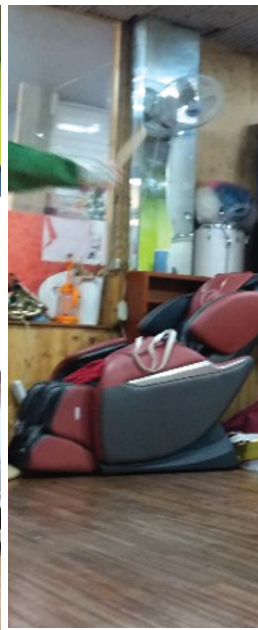
시간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삼천문화의집에서 오랜 시간동안 활동하게 된 이유와 민들레 찾아가는 전통무용단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장소가 확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장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뿌리죠. 장소가 없으면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퇴직 후 특별히 동아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춧돌 기둥이 되서 이끌어 가야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책임 있게 성실히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뿌리를 박고 기둥을 튼튼히 하고 있으니까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2011년 창립멤버가 쉬었다가 2020년에 다시 오기도하고 또 다른 유명한 교사한테 배우지만 그 재능을 봉사활동을 통해 기부하고 싶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지금까지 10년째 이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활동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항상 코로나 때문에 연습 못 하는게 아쉬운데 이렇게 다시 재개했다가 다시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문화의집에서 연습할 수 있을까 언제 코로나가 없어질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동아리 회원이 전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시대흐름을 잘못 따라가요 컴퓨터나 핸드폰, 프린트 같은 거. 어딜 활동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나와야하는데 컴퓨터로 작업해서 사람들에게 줘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있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의 그런 어려움에 관심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쪽 프린트 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민들레 찾아가는 전통무용단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기쁘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6) 북소리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2일 신설동아리로 매주 월요일 12시~2시까지
삼천문화의집에서 연습하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삼천문화의집에서 할 수 없어서 사설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의
주머니가 어려운 형편이라 하루 빨리 삼천문화의집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렴한 가격, 쾌적한 시설 덕분에 참 좋았습니다. 단지 오디오장치가
블루투스 연결 스피커가 있으면 합니다.



북소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2020년 7월28일에 진안 부귀면 황금권역마을에서 농악마을 굿축제에 찬조 출연하여 진도북춤을 선보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진도북춤을 배우면서 우리 것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이 커졌으며 생활의 활력소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동아리 활동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발 삼천문화의집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소리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기쁨과 행복의 샘터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해준 곳이지요!

7) 밴드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를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활동하게 되었는지, 매주 언제 모임을 갖는지 등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동아리는 벤처스음악과 70 80밴드 곡으로 공연을 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연습했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꾸준히 삼천문화의 집에서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요즘은 공연을 못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억력도 높이고 유대관계도 가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올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도 종식되고 마음 편안하게 연습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연습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8) 유정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2년부터 취미가 같은 회원 간에 교류가 되고, 활동하며 지역에 봉사도 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서로 마주보고 연습하고, 공연도 같이하며 지역 간의 협업도 했으며, 공간이 자유롭게 이용 못하는 점이 섭섭했습니다.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김제 지평선 축제와 익산 전국무용경연대회서 입상한 활동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회원들 간의 돈독한 우애와 서로 위로받고 주며 즐겁게 생활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섭섭했다.

유정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호흡이다.





9) 천답(사물놀이)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천답(사물놀이) 동아리패는 2015년에 시작하게 되었으며, 풍물을 통해 천년전주의 소리와 얼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자 결성된 팀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연습하여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공연을 통한 재는 나눔을 꾸준히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 19로 연습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우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항상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는 저희들에게 격려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분기별로 요양원을 찾아가 공연을 하고 있으며, 전주시 한옥마을 버스킹과 삼천동 마을축제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삶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연습을 통해 연주능력이 향상되었고, 공연과 재능 나눔에 있어서 기운차게 앞질러 나서는 힘을 갖고 있다 보니 즐겁고, 소수(8명)의 인원이여서 서로 의지하고 단합이 잘되어 동아리 참석이 즐겁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오래시간 활동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쾌적한 환경과 부담 없는 공간사용료, 그리고 직원들의 따뜻한 미소가 있어 장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희동아리는 사물(팽과리, 징, 장구, 북)을 가지고 연주하다보니 야외연습을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연습이 불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연습할 장소가 절실하답니다.

천담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감사의 장소입니다. 친구들끼리 소통할 수 있고, 재능기부 할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10) 청록빛 수채화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미경 저희 동아리는 2003년 그림동아리 아람회부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에 모입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신미경 예술회관에서 전시회 할 때 좋았던 기억이 있기도 한데, 강사가 바뀔 때와 동아리 내부분제(재정문제, 회원들 간의 불화 등)로 서운했었습니다.

김은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작품전시회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서 좋았어요. 지하주차장 공간을 제공해 주면 좋는데 개방해주지 않아 주차난으로 힘든 부분을 문화의집에서 조금 배려해 개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봉사활동이나, 경연대회 출전 같은 활동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신미경 직업상 봉사활동은 없으나 동아리의 화합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있습니다.

조경아 아직은 삼천문화의 집에서 요청이 있을 때 작품전시를 해 행사에 도움을 주거나, 전시회장을 잡아서 전시회를 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신미경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기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그림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존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용숙 막연히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마침 퇴직하여 여가활동을 할 방법을 찾고 있다가 발견한 청록빛 수채화 동아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활력을 주었고, 동아리 회원들과의 만남도 사회적 관계형성에 따뜻함을 주는 좋은 맺음으로 기억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집 가까이에 이런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동아리가 있어 너무 행복하고 이런 혜택을 주신 삼천문화의 집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동아리가 지속될 수 있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김수영 동아리활동으로 인해 게을리지기 쉬운 주말아침이 부지런해졌어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이었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 연령대와 섞여 배울 용기도 배울 곳도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청록빛 수채화 동아리를 통해 모든 고민이 한방에 해결되었어요. 전주 그 어느 곳에서도 접할 수 없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혜연 매주 토요일 동아리에 오기 위해 준비하면서부터 설렘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로망이었던 미술을 배우고 그리게 되어 내 삶은 충만해지고, 내 행복은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또 동아리 회원과의 매주1회의 만남은 점점 우정을 두텁게 하고, 조금씩 좋아지는 우리 관계는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훌륭한 선생님과 좋은 회원들이 마음놓고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주시는 삼천문화의 집에 감사려요.

서철심 토요일이 즐거워졌어요. 그림을 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



있고, 내안의 다른 모습을 찾아낸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삶의 질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준 삼천문화의집에 감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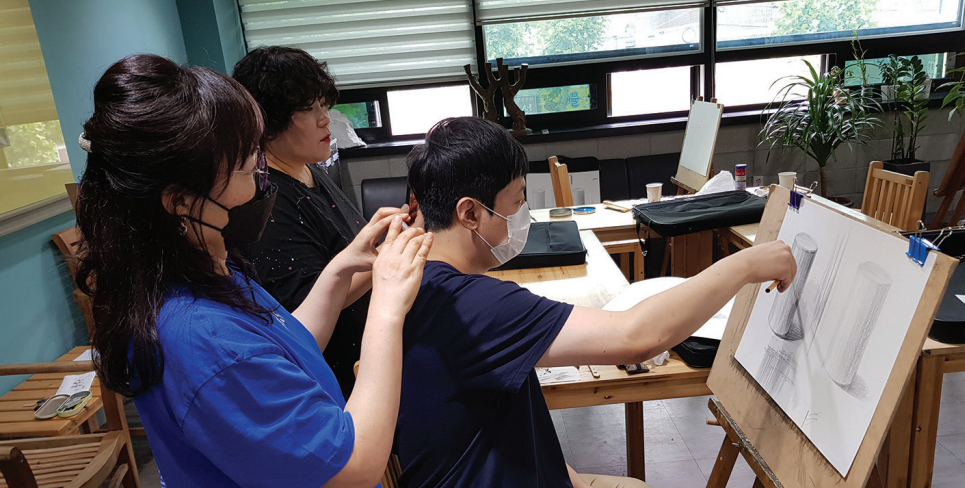
임문순 주말에 무료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에도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삼천문화의 집에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졌어요. 막연히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지만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즐겁습니다.

양희영 그림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 새삼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만나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나와 닮은 모습도 찾아가면서 더 돈독한 인간관계 형성도 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조경아 ‘그림 그리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배려하고 노력하다보니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동아리 모임이 마음속에 기쁘고 보람 있는 일로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오랜 시간동안 활동하게 된 이유와 동아리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신미경 처음 활동했던 동아리의 애정과 현재의 강사선생님을 초빙했던 책임감으로 활동해왔고, 회원들의 변동이 있었으나, 지금은 회원들의 도움



으로 동아리가 장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동아리는 대표의 리더쉽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회원들의 마음과 협조가 먼저 있어야 동아리가 장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희영 든든한 친정집처럼 항상 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는 삼천문화의 집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조경아 사람은 공간을 통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을 마련해 준 삼천문화의 집, 동아리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도 격려해주시는 서완호 선생님, 그리고 매주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열정을 보여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터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동아리 활동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신미경 삼천문화의집 밴드에서 다른 동아리들의 활동사항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록빛 수채화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신미경 삼천문화의집 장수동아리로서 빛과 같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혜경 따뜻하고 포근하며 정겨운 회원들의 안식처!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 최근 코로나19로 더욱 소중한 곳임을 깨닫게 해준 곳.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제2, 제3의 인생을 누릴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양희영 우리 동아리의 친정집!



11) 삼천캘리그래피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삼천캘리그래피 · 서예 · 문인화부는 2012년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자를 통해 바른 글씨 뿐 아니라 미적인 요소와 내면의 욕구를 해소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캘리그래피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좋은 글과 좋은 문장을 접함으로 자신을 위로해주고 계발 할 수 있으며 집중력 · 미적인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수업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삼천문화의 집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면서 좋았던 점은 먼저 글씨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휴식처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해마다 열리는 세내 축



제 때 많이 춥긴 했지만, 모두 다 참여하여 전시하고 볼거리·먹거리를 제 공해 준 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삼천 캘리그래피부·서예·문인화부의 활동은 취미로 일주일에 한번 배우 는데도 공모전인 전북미술대전·온고을 미술대전에서 특선 이상을 수상 한 바 가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캘리그래피·서예·문인화를 꾸준히 배움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자신만 의 좋은 글과 좋은 문장을 찾는 안목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좋은 생각과 용 기를 가질 수 있으며 글자의 디자인과 조형미를 스스로 표현 할 수 있는 응 용력이 생깁니다. 소소히 배우는 과정이지만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는 점에 큰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삼천캘리그래피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따뜻한 휴식처 같은 곳이다.



12) 댄디피플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모니카를 하고 있는 “댄디피플”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훌륭한 임경원 선생님의 지도하에 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즐겁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동아리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고 매주 금요일(주1회) 하모니카의 날로 약 4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키워 나가면서 각종 행사, 경연대회에도 참가하여 “댄디피플”의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는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에 연주를 할 때 호응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나요?

2018년 삼천동 막걸리 축제에 참여했고 2019년도 거마공원에서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활동을 했어요. “전국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 전북대표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회 선정되어 참여했었고, TVN 강호동의 떼창에 참여하여 출연한 적이 있고,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경연 및 공연대회에 참가했고, 연말 봉사활동 등 1년에 20~30회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삶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정년퇴직 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만나지도 않고 껴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악기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1회 활동이 기다려지는 것은 그만큼 인생 후반기의 삶에 활력소가 되고 도전과 성취감이 만족감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삼천문화의집에서 오랜 활동과 동아리의 장수 비결은?

관계자들이 불편 없이 대해주고 있어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회원들과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고 어렵도 연주가 어느 날 할 수 있게 되면서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감이 생기면서 서로 경쟁도 하고 있어 중단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금년에는 한 번도 이용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고요. 종식이 된다면 지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미리미리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댄디피플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뭘까요?

배움의 산실 아늑한 쉼터

13) 청울림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를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활동하게 되었는지, 매주 언제 모임을 갖는지 등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동아리 모임은 2019년 1월에 결성하여 대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까지 삼천 문화의 집에서 대금을 불고 있는 “청울림”이라는 모임입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좋았던 점은 좋은 공간에서 마음껏 연습 할 수 있었으며, 가끔 문화의 집 발표회에 참석하여 대금을 함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서운한 점은 주차공간인 지하 주차장을 폐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동아리가 열심히 연습하여 버스킹 및 세계 소리 축제 공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활문화동호회의 지원을 받아 매년 전주 시내 일원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모든 회원이 열심히 연습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좋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장소를 물색해 쓰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큰 부담이 됩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게 된 이유와 동아리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희 모임은 회원들이 취미로 원하는 모임이기에 잘 운영된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문화의 집을 잘 사용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대처 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연습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울림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서로의 정을 돈독히 해주는 장소!

14) 춤사랑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0여년 전에 한국무용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봉사도 하고
즐거자는 취지하에 모이게 되었고 매주 화.금 오후 모여 연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항상 연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서 너무 행복하고 서운했던 기
억은 없습니다.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지는 한 대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정기적인 연습으로 몸과 마음이 즐거워 건강에 좋고 동아리 회원 간에 친목도목도 하고 여러 면으로 좋고 감사합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오랜 시간동안 활동하게 된 이유와 동아리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회원 간에 끈끈한 정과 나이가 있다 보니 우리들끼리 한국무용 실력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별로 강사님을 초청해 수업을 배우고 있어요. 나날이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일단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짐을 새삼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화의집이 봉사나 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춤사랑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힐링과 휴식처이다.

15) 탈머리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탈머리는 우리의 것인 풍물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30년 역사의 풍물동아리입니다. Daum 카페에서 탈머리(<http://cafe.daum.net/talmeori>)를 운영하고 있어 카페에 들어가면 역사와 활동에 대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삼천문화의 집은 2015년 11월부터 이용했으며 매주 토요일 12:00~17:00까지 만나 연습모임을 가지면서 임실 필봉호남좌도풍물, 사물놀이, 설장구, 국악난타, 고고장구 등을 익히고 연습해 왔는데 가장 근래에는 목요일 16:00~17:50까지 연습 시간으로 이용했습니다.





2007년 10월 원주 성 요셉 동산 양로원 위문 공연 모습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삼천문화의 집 연습공간이 넓고 방음 시설이 양호하여 회원들이 만나 연습하기에 아주 적합했으며 삼천문화의 집에서 주관하여 인근 거마공원에서 실시한 세내축제와 삼천문화의 집 안에서 실시한 동아리 발표회에 참여하여 사물놀이 공연을 했던 일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이 삼천문화의 집에 갖춰있질 않아 회원들이 국악난타를 방바닥을 이용하여 장구채로 연습한 것과 모임일인 토요일에 지하철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것이 서운하다면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탈머리는 해마다 연중계획을 세워 추진 운영하고 있는데 풍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 발표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탈머리카페에 들어가면 학인할 수 있듯이 그동안 양로원, 장애인 행사, 서부시장, 성당 행사, 보름굿 등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몇 차례 자체발표회도 갖고 서울, 익산, 고창, 김제 등에서 개최한 국악경연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회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우고 익힌 여러 품물 기량과 오랜 세월을 통해 회원 간에 맺어진 끈끈한 정과 인연은 각자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량이 높은 회원은 타인을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새로운 사회활동으로 진출하여 경제적 도움까지 얻고 있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오랜 시간동안 활동하게 된 이유와 동아리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삼천문화의 집 이용 공간 및 편의 시설이 양호하여 입주 후 회원들이 꾸준히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해서 기량을 쌓을 수 있었고 탈머리팀 동아리를 필요로 하거나 요청한 곳으로, 또는 품물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을 찾아 대외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가 장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모든 회원들이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여 개인보다는 단체를 위하는 마음이 우선하여 좋은 동아리 분위기가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또한 회원 중에 동아리를 위하여 앞장서서 희생 봉사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동아리 활동은 회원들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문화의 집이었는데 문화의 집 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어 동아리 활동을 못한 채 휴면상태로 회원 각자 개별 생활을 해 왔습니다. 만남이 그립고 연습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화의 집에서는 동아리에게 필요한 연습공간을 제공해 주고 원만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인적, 물적, 공간적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머리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탈머리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 집은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회원들이 정

기적으로 만나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회원이 근무하는 학교 공간을 이용하여 연습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공간마저 없어졌기에 삼천문화의 집은 탈머리 동호회 회원들에게 아주 필요하고 귀중한 곳입니다. 아울러 삼천문화의 집은 탈머리 동호회의 희망의 공간입니다. 회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가꾸고 키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4월 전북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시 풍물 공연



2012년 9월 익산 전국 전통예술 경연대회 사물놀이 공연



2017년 9월 전주역 앞 '마중길 오는 날이 장날' 특설무대 사물놀이 공연



16) 태극권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2015년 8월부터 시작하여 매주 수.금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3층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수요일 삼천문화의집 두근두근방에서 2팀으로 나눠 활동 하고 있어요.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문화의집에서 공간도 만들어주시고 잘 협조해주셔서 운동 열심히 잘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3층 공간을 사용할 수 없어서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지만 여기에 맞춰 따라야지요.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덕진 경로당에서 봉사활동과 재능 나눔등 꾸준히 활동 하고 있습니다. 태극권대회 16식,42식 등에서 다수의 수상경력과 금메달도 많이 받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삶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건강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나 강사님도 나이가 많으신데 먼 곳에서 오셔도 모이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서로 환영해주는 점들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

어 좋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오랜 시간동안 활동하게 된 이유와 동아리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열악했던 시설에서 고생하며 지내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몸 아프신 분, 마음이 아픈 분도 있으셨는데 지인의 권유로 들어와 활동하게 되면서 아픈 팔이 고쳐지고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태극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겨 내다보니 사람들 사이도 더 돈독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의 건강 까지 챙길 수 있어 꾸준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기존에 3층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2층에서조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태극권 동아리는 검과 같은 도구도 사용해야 해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기존 3층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극권 동아리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제가 가톨릭 신자로서 표현하자면 천당과 같은 곳입니다. 예전 활동할 당시 지하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직접 물을 퍼내고, 냉난방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냉난방비도 스스로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비하면 시설이 다 갖추어진 삼천문화의집은 천당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7) 풍남문 친구들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아리는 직장인, 공무원, 사업하시는 분 직업과 연령대도 다양하게 구성된 음악 밴드로 3년째 활동 중인데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어 매주 금요일 저녁 7~9시 까지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좋았던 기억은 공익을 위한 공연 같은 게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그런 게 기 같은 거하고 다른 것보다 시설이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고 가까운 점 들 이 있습니다. 서운했던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동아리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우리만의 특별한 활동은 봉사활동 같은 걸 좀 해요. 삼천 천변에서 저쪽 상수도사업소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하게 작은 음악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올 가을 이나 겨울에 하고 싶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경연대회 이런 것도 하고 싶는데 올 초 처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팀장님과 상의해봤는데 솔직히 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접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이라든지 개선이 되면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삶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이걸 시작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피드백이 되는 거 같아요. 일상에서 나 업무나 사업이나 집안이 됐든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활력소라고 할까요, 그런 기대도 되고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삼천문화의집에서 오랜 시간동안 활동하게 된 이유와 동아리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저희는 존댓말을 써요 연령이 40대 초반부터 70대 가까이 되시는 분도 있는 폭 넓은 연령대임에도 서로 배려를 하는 거죠 팀 자체가 특히 음악 밴드는 한 명이 잘하고 두 명이 잘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솔로고 프로 같으면 पे이 생각하고 이런 데 오겠습니까? 저희는 프로 같은 아마를 추구하거든요. 저희가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거의 가까이 됐다 보고요 그래도 인간관계나 장소 같은 곳도 술집이나 유흥업소 접근 안 하고 문화의집이나 순수한 곳으로 건전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돌발 사태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워낙에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왔을 때도 처음에 여러 장비도 지원해주고 앰프도 고쳐주시고 그랬거든요. 워낙 그 기종 자체가 처음에 나온 기종이라 장치를 보완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윈이라고 저희도 문화의집도 사업이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지원해드리고 도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올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잘해주시니까 뭐 지금 이런 사태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문화의집은 어떤 역할이냐면 지원이죠. 저희들 문화예술 진흥 그런 정책으로 하는 문화의집이니까 그쪽으로 저희도 코드를 맞추고 있고 저희가 움직일 때 저희의 안테나를 세워달랄까 저희들도 알아보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연중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주시면 저희들도 시간 맞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겁니다. 어차피 저희 들이 연습하고 합주하는 게 공연을 위한 거지 개인의 수련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공연 기회를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코로나 19와는 무관하나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쿵작쿵작방에 있는 앰프가 구형이라 에코 기능이 없어요. 공연용이 아닌 강연용이라 저희 합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비들이 단가가 있어서 개선하거나 절충 중에 있으신데 장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풍남문 친구들에게 삼천문화의집이란?

집같아요. 집~ 우리집 같고 편안하고 깨끗하고 따뜻합니다.

3. 기획사업

1)우리가 만드는 삼천이야기 ‘삼천사람’ 양성(2014~2019)

주민 스스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를 함께 모여 논의하며 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들을 모아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며 지역문화를 주도하는 문화생산자로서의 ‘삼천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1기는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삼천1,2,3동 주민 18명이 참여하여 30여회에 가까운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수업은 삼천동 마을만들기 주민간담회, 마을신문 주민기자학교, 우리마을 희망 찾기 입문과정, 우리동네 읽기, 우리동네 사람들 삶 들여다보기, 삼천동 지역답사, 마을에서 경험을 배우는 현장학습, 마을 만들기 ‘삼천은 당신입니다’ 모듬별 기획, 삼천마을축제와 연계한 ‘삼천은 당신입니다’ 결과 발표로 구성되었다. 이 양성사업을 통해 문화예술향유가 개인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즉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며 지역구성원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주민기획단 활동과 더불어 삼천사람 ‘시민예술가모임’, 삼천사람 ‘삼천교육공동체’가 결합되어 활동의 영역을 넓혔다. 삼천사람 ‘시민예술가모임’은 생활문화마켓 ‘삼천 개나리 장터’, 삼천夜한 플리마켓 등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삼천사람 ‘삼천교육공동체’는 예술텃밭 가꾸기, 지역전통문화전승, 삼천마을탐방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삼천사람’ 양성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마을 만들기 토대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14년 우리가 만드는 삼천이야기 '삼천사람' 양성 활동



마을신문 주민기자학교



우리마을 희망 찾기 입문과정



삼천동 지역답사



'삼천은 당신입니다' 모습별 기획





세내축제 참여

우리가 만드는 삼천이야기 '삼천사람' 양성 활동

(삼천夜한 플리마켓_삼천사람 시민예술가 모임)



2016 삼천夜한 플리마켓



2018 삼천야한 플리마켓

우리가 만드는 삼천이야기 '삼천사람' 양성 활동 (삼천사람 '삼천교육공동체')



2018 삼천야한 플리마켓

2) 주민이 만드는 문화장날 ‘동거동락(同居同樂)’

‘동거동락’은 삼천동의 예술가, 예술동호회,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기획단을 구성하여 삼천동의 마을축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다. 15명으로 구성된 주민기획단은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교육, 워크숍, 현장답사, 축제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하였다. 주민기획단은 문화예술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고, 삼천동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기획에서 실행까지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자가 아니라 주체이자 생산자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삼천생활문화난장 ‘개나리 장터’(2014~2019)

‘개나리 장터’는 2014년 10월 25일 세내축제 기간 동안 삼천문화의집에서 ‘삼천 문화나눔장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 2015년부터 삼천생활문화난장 ‘개나리 장터’로 이름을 바꾸고 2019년까지 매년 진행했다. 첫 해인 2014년에는 삼천지역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 공방, 동호회, 학교, 학원, 교육단체 등이 참여하여 14개의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구분	참여단체	내용
1	전주해성중학교	•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 종이, 형값을 이용한 가방 만들기 • 샌드위치 세트 판매
2	효문여자중학교	• 효블리-예쁜 손, 고운 손 • 손마사지, 네일아트
3	서전주중학교	• 나만의 버튼 만들기 체험
4	삼천남초등학교	• 하늘풍선만들기, 떡볶이 판매
5	풍남중학교	• 떡볶이 판매
6	진우영 종이공방	• 종이체험, 색종이 접기, 머리띠 만들기
7	동안 스킨케어 셀프메이크업 메이크업	• 메이크업, 피부고민 무료상담
8	리사모-리품을 사랑하는 모임	• 청바지 코사지 만들기
9	붓 놀이, 서예, 문인화	• 붓글씨 체험, 서예 작품 전시
10	아시아 이주여성센터	• 베트남 만두 판매 및 홍보
11	전주시 그린리더	• 어린이 기후변화 체험 교육
12	예쁜손 글쓰기 POP	• 손글씨로 꾸민 아로마 석고방향제 만들기
13	반짝반짝 페이스페인팅	• 페이스 페인팅
14	전북평생교육사들의 모임	• 삼천동 보물 찾기 • 전주시 지도퍼즐을 이용하여 새 주소를 알리고 삼천동의 위치 익히기 • 삼천동의 역사와 곰솔나무 이야기

2015년부터는 삼천 지역의 공예 · 공방 작가와 동아리 등이 참여하면서 공예 · 공방 중심의 생활문화마켓으로 운영하였다. 삼천동의 유 · 무형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류의 장과 삼천동만의 생활문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삼천지역 공예 · 공방 작가들과 함께 지역에 맞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2014년 삼천문화장터



삼천생활문화난장 '개나리 장터'(2015년~2019년)



3) 용기들과 몽구려!!(2016~2019)

‘용기들과 몽구려!!’는 농촌문화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이다. 전주용기놀이는 일제강점기 때인 1940년경까지 농촌지역(평화동, 삼천동)에서 이어지던 민속놀이였지만 현재는 전승이 끊긴 상태이다. 용기놀이는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의 문화적 매개 역할을 했었다. 이 프로그램은 대동놀이인 두레풍물을 비롯한 용기놀이에 대한 지역 어르신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민속놀이를 복원하여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전승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놀이문화로 정착하고, 나아가 마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4월에서 11월까지 평화동 지역 두레풍물의 가락과 진풀이 교육, 용기놀이 교육, 용기놀이 연희과정 교육, 백중놀이 행사 재현, 대보름행사를 비롯한 마을축제 참여 등 45회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평화동 주민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평마을 마을일원에서 진행됐다. 또한 김제 지평신 축제, 전북 어르신 문화축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외국인 방문 공연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4) 우리 동네 초록별이 자란다(2014~2019)

이 프로그램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2012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국문화재단과 함께 학교에서 진행하는 소극적 문화예술 교육을 벗어나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이다. 삼천문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동네 초록별이 자란다’라는 주제로 운영했다. 2016년 전북관광문화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최기춘 관장은 다음과 같이 기획의도를 밝혔다.

“여긴 제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지역 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 이상 계속 여기서 살 텐데, 이곳이 뻔 한 동네가 아닌, 재밌는 동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움직이는 예술텃밭과 이 캠프를 기획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고, 만들고 싶어요. 예술텃밭 같은 마을활동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이곳을 이해하고 일상이 즐거웠으면 해요. 좋아하는 선배님이 말씀하시길 ‘문화예술교육은 삶이어야한다’고 해요. 저도 동의 해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급작스럽게 변화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면 안돼요.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탐방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녕 여기서 노는 거죠. 어른들은 삼천동에 대해 시험엔 안 나오니까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의 뿌리, 내가 사는 곳에 대한 관심과 애정, 자긍심을 가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을 거창하게 바꾸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른이 대서도,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도 지금 이 기억을 안고 가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 동네 초록별이 자란다’는 삼천사람-삼천교육공동체와 연계하여 진행했고, 삼천동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가족 등이 참여했다. 매년 4월에서 11월까지 아이들은 마을탐방을 통한 동네 읽기, 유희공간을 활용한 텃밭디자인, 텃밭(작물)가구기, 예술텃밭 꾸미기와 게시판 운영, 움직이는 텃밭만들기, 텃밭잔치, 텃밭 예술캠프에 참여했다.

[현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전북-삼천문화의집 "움직이는 예술텃밭"

글쓴이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작성일 : 2016-09-20 00:00:00

글주소 : <https://www.jbct.or.kr/post/635>



취재, 글_선지영(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JB통신원)

아이들은 모른다.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 기억이 얼마나 내 삶에 크게 자리하고 영향을 미치는 지,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과 구르기특공대 비스무려한 유치한 이름을 지어 우르르 몰려다니며 어딘지도 모르고 동네를 방방곡곡 휘젓고 다녔다. 물에 빠져 반짝거리던 햇빛 알맹이들과 천변의 이끼들, 그 오후의 나른함을 기억한다. 그 때 입었던 하얀 반바지에 이끼를 묻혀 던진 친구 때문에 난 짜증나 울었었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한다. 아날로그 감성 고트머리 폼 간신히 잡고 있는 세대라 새삼 다행이다 싶다. 그럼 요즘 아이들은 나중에 꺼내 볼 따듯하거나, 아련하거나, 재밌는 추억들은 어디서 만드느니..? 요즘 아이들 안쓰럽지만, 부러운 게 있다면 그 중 하나는 분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일거다.

출처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https://www.jbct.or.kr/post/635>)

우리 동네 초록별이 자란다. '움직이는 예술텃밭'

아이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마을, 동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삼천동의 이름이 왜 '삼천'인지 생각해 본 적 있을까? 오래 산 터줏대감 어르신들이나 마을의 역사와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이들 뿐 아니라 웬만한 어른들도 막상 동네의 구석구석, 미모저모를 잘 모른다.

삼천문화의집 최기춘 관장은 삼천동 아이들이 본인이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뚝뚝 안고 살아가는 행복한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삼천동 탐방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마을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여러 방법으로 텃밭에 표현하는 것이다. 이름하여 예술텃밭. 아이들이 예술텃밭을 만드는 동안 그곳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아지트가 된다. 동네에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데, 이를테면 골목의 삭막함, 쓰레기가 쌓인 전봇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 인도 등. 이런 장소에 움직이는 예술텃밭을 조성하고 이는 마을의 골칫덩이에서 하나의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꽃밭은 벌써 동네 명소가 됐다. 이런 멋진 해결책이 또 있을까? 동네 뿐 아니라 아이들도 변화한다. 텃밭을 꾸밀 여러 방법을 생각하며 예술적 소양을 키운다. 또 반찬투정을 하고 음식을 함부로 여기던 아이가 예술텃밭을 이루면서는 과연 그전과 똑같이 행동할까? 더 이상 늘 먹던 흔해빠진 오이, 먹기 싫어 몰래 버리던 가지나물이 아닐 것이다. 내가 키운 오이, 내가 물을 준 가지에는 애정이 담기고 그것들은 마침내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이렇듯 1년간 예술하는 농부로, 마을 활동가로, 도시재생 기획자로 열혈 활동하는 삼천 아이들이 여름캠프를 떠난다 하여 그 현장을 찾았다. 멀리멀리 타지로 버스타고 가는 여느 캠프와 달리 예술텃밭 캠프는 동네로 간다. 삼천동 도예 작가 방호식 선생님의 장자요란 공간에서 예술텃밭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근처 학전마을로 이동, 신나는 물놀이와 맛있는 만찬을 즐긴다. 저녁이 되면 삼천천 탐방 시간. 모기와 사투를 벌이며 반딧불이를 찾아 나선다. 둘째 날은 모악산 산행이다. 이제 보니 삼천동 일대에 놀 것들이 참 많다. 제대로 놀려면 1박 2일도 모자라다.

삼천초 3학년 한비에게 캠프 참여 소감을 물었다.

“아까 낮에 언니들이랑 수영장에서 엄청 신나게 물놀이 한 게 제일 재밌었어요. 요즘 더워서 너무 힘들었는데 물놀이를 시난게 하고 나니 더위가 싹 가셨어요. 여기 와선 센터 언니들(지역아동센터)이랑 더 많이 친해져서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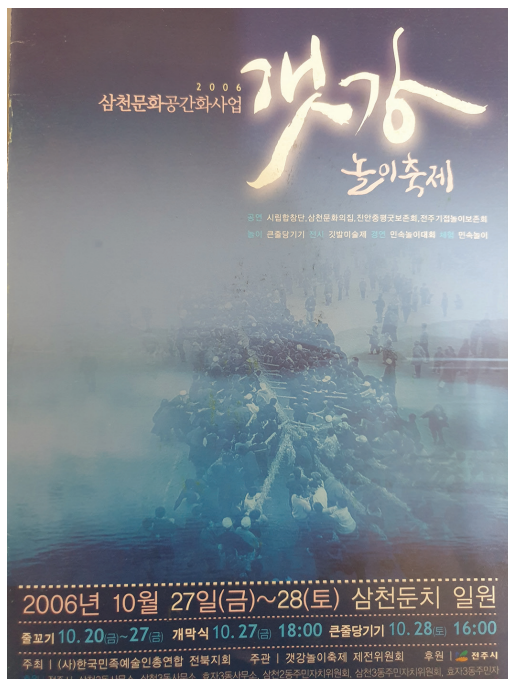
삼천초 5학년 은정이.

“제일 재미났던 시간은 물놀이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너무 좋아요. 물놀이를 너무 신나게 해서 그런지 피곤해요. 밤에 반딧불이 보러 한 시간 반 동안 천변 걸은 건 너무 힘들었어요.”



5) 삼천마을축제(2009~2019)

세내(삼천천)이 흐르는 삼천동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오래된 민속과 자연생태가 전승,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 삼천문화의집의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삼천지역의 전통문화와 생태자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문화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 첫 출발은 2006년 10월 27일에서 28일까지 삼천둔치 일원에서 열렸던 ‘갯강 놀이축제’이다. 삼천문화공간화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가 주최하고 삼천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 전주기점놀이보존회, 삼천동·효자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위원회가 참여한 이 축제는 지역주민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삼천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예술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문화축제를 지향했다.



2009년부터 삼천문화의집 주관으로 ‘세내축제’가 열린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세내축제’는 삼천문화의집의 운영단체인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의 색깔이 드러나는 전통문화축제의 성격이 짙었다. 2009년 “세내전통문화축제-용기(龍旗) 천년전주를 날다”의 소개글을 보면 축제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세내가 흐르는 효자삼천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만나는 오래된 민속과 자연생태가 면면히 전승, 보존되고 있는 아름다운 섬터입니다.

세내전통문화축제는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의 직접적 삼천생각권 주민조지과 문화단체, 학교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주민참여형 문화축제로서 생활문화의 전통이 어울어지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숨 쉬는 전통문화축제개발로서 전통문화자원의 복원과 창조적 계승을 통해, 전통문화도시 추진에 기여하며, 도시와 농촌, 사람과 자연과 문화가 공유하는 삼천만의 생태문화를 만드는 세내전-통문화축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14년 삼천문화의집의 운영단체가 (사)전통예술원 모약으로 바뀌면서 ‘세내축제’는 삼천지역의 생활밀착형 축제로 색깔을 바꾼다. 특히 2015년 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행하는 생활문화축제를 지향한다. 또한 축제 장소를 삼천둔치에서 삼천 거마공원으로 바꾼다. 이전 ‘세내축제’의 프로그램을 보면, 길꼬네기, 섣다리축제, 민속놀이 서바이벌, 용기놀이 체험, 대동합굿 등 전통문화가 중심이었다면, 2015년부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적 역량을 표현하고, 다양한 생활문화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다. 프로그램을 더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축제는 ‘꿈이 페스티벌’과 ‘우리 동네 박물관’으로 구성된다. ‘꿈이페스티벌’은 문화의집 동아리 공연, 어린이·청소년 동아리 공연, 재활용 나눔 장터, 우리 동네 초록별이 자란다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동네

박물관'은 가족 낚시대회, 가족 운동회, 가족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느린 우체통, 가족 이야기 노트, 생활문화동호회 공연, 용기들과 몽구려 발표회, 삼천동 막걸리 왕대포 축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이후 세내축제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행하는 생활문화 마을축제로, 지역 및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 현안의 문제를 해소하고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마을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4 세내축제



2016 세내축제



2019 세내축제



4. 아카이브(2006~2012)

1) 한지민속 그림작품展(2006)



행사개요

- 일시 : 2006.12.22.(금)~29(금)
- 장소 : 삼천문화의집 전시실
- 주최 : (사)나누는 사람들
- 주관 : 삼천문화의집, 한중사모
- 후원 : 전주시, 전주시평생학습센터

주강사의 글

유미/삼천문화의집 한지민속그림 지도교사

작은 문화체험 공간 삼천문화의집에서 2006년 전주평생학습센터 동아리지원 사업 결과보고 전시회 ‘한지민속그림 작품展’을 준비했습니다.

한지와 종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중사모 회원님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물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전통에 현대를 접목한 한지민속그림 작품은 섬세함과 끈기를 요하는 지난한 작업의 산물입니다.

주부로서 엄마로서 주부로서 가정생활을 챙기시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는 주부님들의 열정에 같은 주부의 입장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한지민속그림 작품展’의 전시작가 및 전시작품으로는 유미, 천경희, 임선희, 김현진, 황해순, 홍선희, 정미영, 백복희, 허유숙, 오봉례, 윤미현, 박연화, 이선화, 이성희, 김예심, 유선희, 최현숙, 김유미 등 총 20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해바라기
윤미현 | 35×11



해바라기
박연화 | 35×11



꿀벌
김현진 | 10×20



겨울
오봉례 | 35×11



연날리기
천경희 | 52×38



실바람
허유숙 | 15×30



말타기
김예심 | 25×37



즐거운여름
이선화 | 52×38



딱지치기
이성희 | 25×35



정
유미 | 40×30



할아버지와 감
홍선희 | 23×26



다같이돌자 동네한바퀴
항해순 | 44×53



정물1
임선희 | 32×23



정물2
임선희 | 3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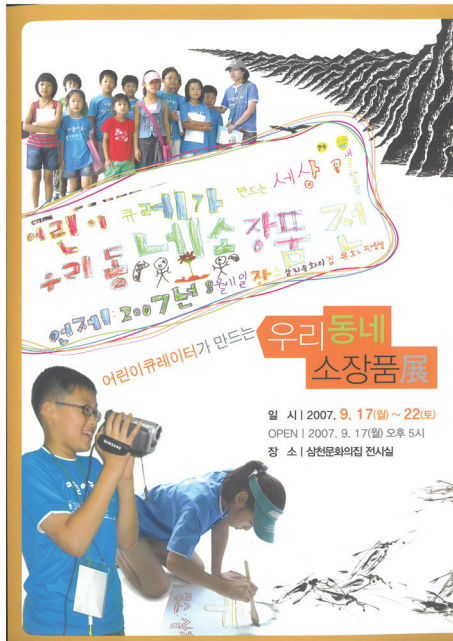


| 정미영



양귀비
백복희 | 28×42

2) 어린이큐레이터가 만드는 ‘우리 동네 소장품展’(2007)



행사개요

- 일시 : 2007.9.17.(월)~22(토)
- 장소 : 삼천문화의집 전시실
- 주최 : (사)나누는 사람들
- 주관 : 삼천문화의집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문화의집협회

주강사의 글

정하영/교육강사

미술아 사랑해! 우리, 어린이 큐레이터인데
친구할까!

첫날 먼저 이름만으로도 생소한 큐레이터
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발대식

을 가졌다. 아직은 큐레이터라는 이름이 어색하지만 자신들이 ‘어린이큐레이터’가 되어 ‘우리동네 소장품展’까지 준비한다는 게 내심 자랑스러운 눈치였다. ‘우리동네 소장품 탐험’이 이루어졌고 처음 이승철 회장님 댁을 방문하여 현노 최규일 옹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사모님이 정성스레 준비해주신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삼천성당에서는 내외부에 설치된 조각작품들과 성화들 그리고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에 숨은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삼천동에서 제일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 라현규 회장님 댁도 방문하였다.

큐레이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도립미술관에서는 리플렛 자료까지 수집할 수 있었고 미술관 앞마당에 설치된 분수에서의 물놀이는 잊지 못할 추억들이 되었다.

현장학습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기록하며 그것을 토대로 보도자료에 플랑제 작 그리고 전시장 페인팅 작업까지 앞으로 전시오픈과 함께 '어린이큐레이터 명예자격증 수여식'만을 남기고 있다.

아직도 '아~ 이번주에 큐레이?-해요?'하는 해맑은 아이의 미소와 때론 진지한 표정의 눈 빛과 페인팅 작업으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번 '어린이큐레이터'라는 놀이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큐레이터가 되어 전시장 디스플레이까지 해봄으로서 리더십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유당 김희순(兩堂 1886-1968)
35×27(cm) / 소장가 김대환



백봉 조갑식(白峯 趙甲植 1954~)
75×40(cm) / 소장가 김영신



송산 최명선(松山)
132×70(cm) / 소장가 이상기



백봉 조갑식(白峯 趙甲植 1954~)
34×61(cm) / 소장가 김영신



유대수(1964~)
188×122(cm) / 소장가 유대수



단죽(丹竹)
20×57(cm) / 소장가 김금



김승호(1967~)
58×57(cm) / 소장가 정하영



진창윤(1967~)
52×44(cm) / 소장가 김신태



김봉익(1933~)
30×28(cm) / 소장가 김봉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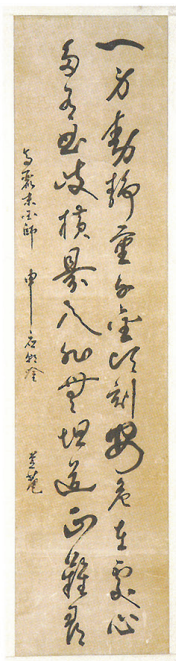
임동주(1959~)
117×72(cm) / 소장처 삼천성당



김대성(1946~)
32×23(cm) / 소장가 강대한



이기훈(1959~)
240×60(cm) / 소장처 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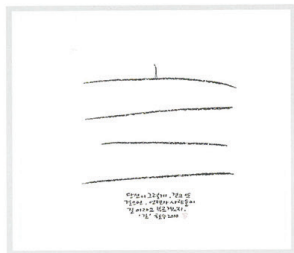
지암(芝菴)
31 × 127(cm) / 소장가 리현규



현노 최규일(玄老 1940~)
70 × 45(cm) / 소장가 이승철



현노 최규일(玄老 1940~)
44 × 71(cm) / 소장가 이승철



이철수(1954~)
47 × 40(cm) / 소장가 김성식



최병수(1960~)
78 × 44(cm) / 소장가 유대수



석전 황목(石田 1886~1968)
32 × 62(cm) / 소장가 강선영

3) 이야기가 살아있는 우리민화展(2007)



행사개요

- 일시 : 2007. 12. 26. (수) ~ 31 (월)
- 장소 : 삼천문화의집 전시실
- 주최 : (사)나누는 사람들
- 주관 : 삼천문화의집
- 후원 : 전주시, (사)한국문화의집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자의 글

이준호/삼천문화의집 관장

‘이야기가 살아있는 우리민화展’은 ‘어린이 큐레이터가 만드는 우리동네소장품展’, ‘세女子的의 행복한 공예展’에 이은 세 번째이자 올 한해의 마지막 전시회입니다. 두 번

은 삼천문화의집 전시실에서 한번은 한옥마을 전주공예품전시관 기획전시관에서 판을 벌려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관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뜻깊고 아주 유익한 전시회들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살아있는 우리민화展’은 20여명의 아주머니들이 7월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은 결과물의 전시회이자, 저희 삼천문화의집을 애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민화란 무엇인가를 눈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민화작품의 완성도는 기성의 민화작가들의 작품에 비하면 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향유를 넘어 창조에 입문하는 발걸음을 내디딘 20여명의 수강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전시작품은 양미숙, 이영란, 김정순, 홍혜영, 임연자, 신왕희, 최영임, 최부자, 백종숙, 한옥자, 홍성순, 김은심, 최선아, 조양선, 최수진, 최현숙, 김숙

영, 이수정, 오안나, 이이재, 손양우 등 스물한분의 입체작품과 민화작가 김
미경님이 작품 4점 그리고 민화의 유형별 패널 10여점이 전시됩니다.



벽사도 | 종이에 채색



벽사도 | 종이에 채색



도란합죽선 | 종이에 채색



백접도 | 종이에 채색



백접도 | 종이에 채색



장생도 | 황토염색천에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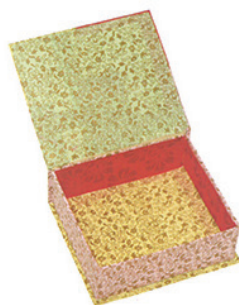
다과상 | 한지



송학암죽선 | 종이에 채색



보석함 | 한지



보석함 | 한지



쌍토부채 | 종이에 채색



모란부채 | 종이에 채색



휴지상자 | 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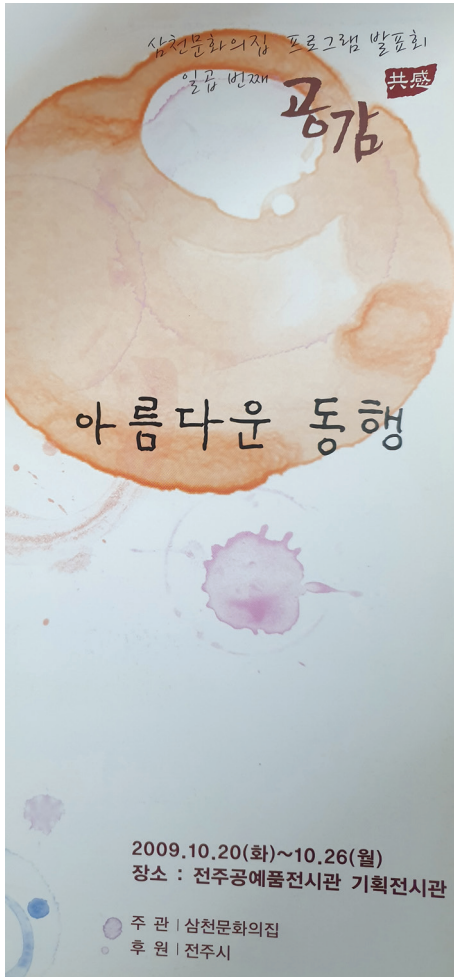


티셔츠 | 나염



필통 | 한지

4) 아름다운 동행(2009)



행사개요

- 일시 : 2009.10.20.(화)~10.26(월)
- 장소 : 전주공예품전시관 기획전시관
- 주관 : 삼천문화의집
- 후원 : 전주시

주강사의 글

송은숙 / 지도강사

예술이 대중과 함께 숨 쉬고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라면 비드아트 분야는 그 대중성이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볼 때 삶의 질을 높일 생활예술로써 가장 기대할 만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것' '고유한 것'을 추구하는 요즘 트렌드에서 보더라도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예술분야일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비드아트가 취미생활에서부터 고품격 생활용품과 예술작품까지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공예분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설렘과 기대로 출발한 이 전시-회의 시작이 기쁨을 예술가로써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마침의 벽찬 감동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꽃자리 - 큐브, 델리카, 자수정



미궁 - 터키석, 시드비드

가을 愛 - 시드비드



이 현 미



해와달 (브로치)
극소비드, 시드비드, 램프워크

이 미 순



신 명 숙



기원
오닉스, 시드비드, 크리스탈



꽃 - 시드비드, 핵사, 램프워크



동행 - 시드비드, 큐브

5) 우리동네예술가들이 만드는 삼천동 Art Day(2009)



행사개요

- 일시 : 2009년 9월~12월,
행사기간 11월 14~15일
- 주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주관 : (사)한국문화의집협회,
삼천문화의집,
삼천동 아트데이 주민기획단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삼천도서관

주강사의 글

김동영/주강사

예술가들이 바라본 우리동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삼천동에 살고 있는 예술가와 삼천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 자산의 연결이라는 점점에 초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예술관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작품 성향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삼천동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을 주목한 이유는 예술가들도 삼천동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삼천동의 일상적 공간과 삶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각각의 예술적 재능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술가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적 공간의 삶을 미적 상상력을 통원해 표현한다면 누구보다 지역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삼천동의 예술가들을 만나기 전에 삼천문화의집은 삼천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이야기지도를 만들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삼천동의 아픈 기억을 알게 되었다.

삼천동은 전형적으로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농업기반의 시골마을이었다.

모퉁이방죽과 거마평이라는 넓은 평야를 기반으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 마을의 가장 어른인 좌상영감에게 인사를 하고 걸어가야 할 정도(이런 이유로 마을의 이름이 하거마(下車馬)로 불렸다)로 마을의 위세가 강했다.

하지만, 전주시의 도심부의 팽창과 더불어 시작된 택지개발사업은 삼천동을 가만두지 않았다. 상거마는 아파트지구로 개발되었고, 하거마는 주택과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거마평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성황당자리에는 빌딩이 들어섰고, 거마평에 물을 대던 모퉁이방죽은 공원과 도서관이 자리를 잡았다. 주거와 생활권으로 구분되던 마을은 어느새 택지개발을 위한 도로로 나뉘어졌다. 특히, 거마공원은 모퉁이방죽이 있던 자리로 현재에도 맹꽁이 서식지가 있어 삼천동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삼천동의 예술가들과 모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보고 대표적인 공간을 문화적으로 바꿔보자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거마공원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삼천동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해 그 공간을 문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거마공원은 삼천동의 과거와 현재가 예술적으로 재현된 문화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러한 실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삼천동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삼천동의 일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는 노력과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웨딩사진 전문가가 사진기의 망원경을 소소한 지역의 일상으로 맞추고 이

를 찍기 위해 지역의 소방서와 경찰서를 방문해 그들과 함께 출동해보고, 삼천동의 외곽에서 도예작업을 하던 도예가는 땀뿔이 서식지에 도자기로 만든 땀뿔이 가족을 전시하고, 목공예가는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땀뿔이 라이더를 만들었다. 화가는 행사장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했고, 종이 공예가는 모퉁이방죽에 살던 다양한 동물친구들을 다시 살려놓았고, 이야기 지도에 참여한 주민들은 삼천동의 숨겨진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지역의 일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특정한 공간을 변화시키고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경험을 한 예술가들은 그 무엇보다 이번 행사의 가장 소중한 성과이다. 이들은 이제 삼천문화의집에서 다른 강사들과 다르게 단순히 기능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문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삼천문화의집은 이런 예술가들과 함께 해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간과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내년에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예술가들과 함께 1년간 지역의 일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다양한 지역주민도 함께 할 것이다.

기획자의 글

이수영 / 삼천문화의집 관장

‘지역민이 만드는 삼천상설문화마당 세넷가콘서트’에서 ‘우리동네 예술가들이 만드는 삼천동 아트데이’가 만들어지기 까지...

삼천동에 산지도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결혼하고 막 이사 와서 먹고사느라 급급해 마을 어느 구석하나 돌아보지 못했던 듯도 싶습니다. 그래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삼천의 천바람은 정말 시원했지요. 문화의집과 더불어 저도 이 마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천동이 변화해온 마을이야기와 옛 문화에 대해서도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더욱 꿈꾸게 되었습니다. 삼천은 세 개의 내가 한 데 모여 흐른다해서 우리말로 세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은 정말 많은 전주 서남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거니는 삼천천변이 또한 유명하지요. 많은 운동기구와 걷기 좋은 코스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다양한 문화적 실험이 필요하고 가능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세와 회사와 아이들의 교육으로 오게 된 어느 동네중 하나인 동네였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의 일상적 공간을 문화적으로 해석하고 예술적으로 바꾸어보는 와중에 삼천동은 다른 어느 동네보다 특별한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화프로젝트 삼천문화마당은 그런 바램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그 작은 꿈들을 가슴에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마을을 바라보는 단순한 예술작품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지역을 바라보게 된 문화예술인들이 마을 주민들과 더욱 밀착되게 강좌와 사업을 해가면서 주민들 또한 문화적 관점으로 마을을 만드는 것에 동참하게 되고, 그 안의 더 많은 시민강사들과 문화예술가들이 함께함으로써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특별한 우리들의 마을이 되어가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만들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은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세넷가에서 거마평 땡퐁이로 주제가 바뀌긴 하였지만, 변화는 에너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주어진 세넷가 콘서트에서 거마평의 땡퐁이로 주제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을 이해하고 더욱 잘 담아내려고 했던 함께 준비하신 선생들의 열의와 열정 덕이었습니다. 삼천동의 땡퐁이 덕에 무관심하게 지나던 도서관의 거마공원은 이제 마을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마공원으로 더욱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눈 오는 오늘, 땡퐁이 놀이터에 금년부터 살게된 도자기 땡퐁이는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습지에 새로운 친구들과 노닐고 있습니다. 아마도 11월에 함께 놀던 종이곤충 친구들과 나무땡퐁이들을 그리워하고 있겠지요. 내년엔 더 많은 친구들을 마을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모임 때부터 3개월 여 간의 짧은 만남과 문화적 실험과 평가까지 몰랐던 사람들이 모여 큰 하나를 이루어낸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이 프로젝트북에 담았습니다. 벌써 잔 기울이며 이야기했던 개나리시장과 세넷가와 작은 공원들과 집 앞의 작은 공터들이 바뀌는 모습이 함께 그려집니다.

삼천동 Art Day 주민기획단의 글

정상현 / 주민기획단 단장

대체적으로 원활이 진행된 회의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당한 선에서 양보도 많이 하시고 희생하시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참석한 분들이 주변의 관련된 분들이 많아서 좀 더 많은 의견, 다양한 의견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회의 진행부터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석을 유도함으로써 아트데이의 다양함과 질적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진행상의 문제는 많은 부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 도 있겠지만 좀 더 시간적으로 부적인 점이 많아서 개개인들의 모습들이나 창작의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과 저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매끄럽지 못한 주먹구구식 그때그때 해결하려는 면이 다른 행사와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면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반면 추운날씨에도 차명하신 모든 분들이 잘 마무리 해주시고 사고 없이 마친 게 다행이구요! 굳이 좋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행사였으니까요... 앞으로 이 사업이 또 진행된다면 다시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좀 더 잘...

방호식 / 도예가

많은 작가분들과 우리 삼천동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최기춘 / 전통예술인

우리동네를 문화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처음은 작았지만, 몇 년 후엔 삼천동이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동네로 바뀌겠죠. 살맛나는 동네, 자랑스러운 동네, 삼천동 만세!!

임아영 / 나무 그리고 자작나무

다른 분야의 공예선생님들을 만나 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추울 때 말고 따뜻할 때 만나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 한지민족부조공예가

새로운 선생님들과의 만남, 사업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면서 정이 들어버린 우리들의 아트데이는 삼천동의 지역민들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참여하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정현주 / 나무 그리고 자작나무

여러 작가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새로운 경험해서 좋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봉례 / 종이공예가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분야가 다른 선생님들과 아트데이는 우리의 작은 축제를 넘어서 삼천의 큰 축제였고 이야기였습니다. 하나의 추억을 만들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유경훈 / 사진사

아트데이를 준비하면서, 사진작업을 통해 지역 문화와 역사를 새로이 알게 되었고, 또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진솔한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전개될지 벌써 궁금하네요...
“아트데이”그날은 오 “해피데이” 아자아자 파이팅...

최성훈 / 노래모임 우리동네

너무 짧은 시간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내

년에는 더 좋은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면 모두가 하나 되는 지역의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석희 / 보컬

기획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영권 / 미술가

아트데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소중함은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생각하는 마음이라 새악합니다. 그것은 작은 축제와 지역문화공동체의 활성화라고 느낍니다.



6) 가족미술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2010)

행사개요

- 사업명 :
가족미술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
- 교육대상 : 푸른지역아동센터 가족 43명
- 수업기간 : 1회 15차(2010년 4월~7월),
2회 15차(2010년 9월~12월)
- 주관 : 삼천문화의집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기획자의 글

이봉금/ 주 강사

가족미술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로 수업을 계획하게 되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가족이라는 구성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다. 사회구성원의 가장 작은 집단인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소중함을 알고 잘 지켜낼 수 있다면, 좀 더 밝고 발전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비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 수업은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보다 건설적이고, 화목한 발전적인 가정을 이끌어 가자는 제시이며, 기획의 제공이라고 생각한다. 맞벌이 부부와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대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은 식사하고, tv시청하는 시간 정도인데 그마저도 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것을 느낀다.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가족문화가 그다지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가족미술 프로그램은 미술을 매개로 온가족이 함께 공동작업을 하며 평소 일상생활에서 걸여된 가

족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했다.

이 시간은 학습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닌 본인의 개성과 표현, 그리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함께 완성해 간다. 부모님과 아이들은 미술재료를 가지고 주제에 맞는 그림이나 만들기, 꾸미기, 역할놀이 등을 어떻게 할지부터 상의하고 모두 함께 작업에 참여하여 한 팀이 되어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애 그렇게 하고 싶은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결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한 과정 자체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적용되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업시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활습관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한다.

쉽고 간단한 미술작업을 통해 또는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도 척척해내는 것을 보고 ‘아! 이런 것이 내가 깨닫지 못한 나비효과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대체적으로 모든 가정에서 이런 수업시간을 집에서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수업시간 이후에 작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시간에 진행한 다양한 그리기나 꾸미기, 역할놀이 등은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다. 물론 아이들이 더 자라서 부모와의 시간이 이런 놀이형식을 벗어나게 된다면이라도,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했다는 기억은 그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가족전체의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될 것이다. 부모님이 직접 아이와 할 수 있는 놀이나 미술 등을 통해 그동안 해줄 수 없었던 것을 해줄 수 있고, 그로인해 단절되었던 시간이나, 결여된 표현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족은 보다 건강하고 건설적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업을 통해 느낀 것은 표현력이 부족한 가족 간의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고, 아이들의 관심사나 표현력을 통해 부모가 훨씬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고, 결국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계기(수업)가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배워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간은 온통 가족끼리의 화합하는 시간이다.

힘들게 마련된 시간인 만큼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그저 수업시간을 충실히 계획할 뿐이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집에 가서도 그런 수업을 기억하면서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도 수 없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업의 진정한 효과는 매주 진행되는 수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시간을 공유한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이라는 기억의 힘이라 믿는다. 나는 이 수업을 계획하면서 나의 모든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이나, 해롭직한 것을 추려내야 했다. 미술을 매개로하여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업이어야 했고, 내 자신이 그 수업의 요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했다. 충분히 나의 의도가 전달이 되고, 받아들여졌다면 아마도 수업 전반적 내용을 큰 무리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범위여서 그랬을거라 생각한다.

이 수업은 미술치료도 아니고, 미술 학원 같은 수업도 아니다. 꼭 미술이 아니어도 좋다. 단지 가족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와 주제라면 무엇이든 좋기 때문에 그 수업내용도 충분히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수업이 가정에서도 다른 형태로(자기 가족에 맞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변해가면서 계속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참여가족의 글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썰렁가족 임선정

길고도, 짧은 시간 가족과 즐겁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가족미술 프로그램이 끝났다. 우리 가족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 만들기, 그리기,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가족의 달라진 모습은 서로 협동하고 타협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부분과,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어졌다. 아빠는 원래 그림을 잘 그리셨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 색을 칠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 따라 그에 맞도록 조화롭게 색을 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평소에는 시간도 없고, 그리지 않으셨던 그림을 그리려 하니 힘들어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서 웃으시고, 흐뭇해 하셨으며 민화그리기 수업 때에는 붓으로 색을 칠하는 부분을 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없어 모일 수 없고, 대화도 하지 않았던 우리 가족이 많이 달라져서 좋다고 하셨다. 동생과 나는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고민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동생의 장난이나 화를 참아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족이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잘 들어주며 서로 협동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화목하고 즐거운 모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또,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끈기 있게 도전하는 힘찬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가족 파이팅!

미술을 통해서 작은 휴식과 기쁨을 느끼길 바라며

붕어빵가족 조정화

미술은 항상 나에게 돌아가야 할 될 고향 같은 휴식이나 안식의 느낌을 준다. 그래서 우리아이들도 미술을 통해서 작은 휴식과 안식, 그리고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인지 문화의집에서 한다는 가족미술 프로그램에 바쁜 와중에도 선뜻 참여의사를 밝혔나 보다. 나의 생각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우리 아이들도 금요일 날 자기들끼리 먼저 가서 선생님 지시에 따라 이야기하고, 만들고,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 기특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미술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고 생각을 깨우쳐 줄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의 손길로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어떤 때

는 아이들의 허황된 이야기에 살짝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자기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동안 아이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지 못한 듯해 반성이 되기도 하였다.

‘패밀리가 떴다’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다양한 주제의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살짝 엿보기도 했고, 집에서는 같이 할 수 없었던 만들기도 하면서 조금이나마 아이들과의 교감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실생활에서는 감히 그릴려고 해보지도 않을 민화를 그리면서 아이들이 이 수업에서 했던 미술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본다. 미술이라는 좋은 것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갖게 해준 문화의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본다.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쟁이가족

흰눈이 하얗게 쌓여 있기를 기대하며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는 모습이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엄마 딸.

이제는 자기도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이 되어 가고 있다고 힘 있게 말 하면서도 은근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 엄마에게는 아직도 어리고 어설픈 엄마 아들...

엄마가 가족 미술 여행을 신청했다고 했을 때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던 아들, 마냥 신났던 딸, 못마땅했던 아빠와의 미술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지.

강물이 흘러가듯 우리가족의 행복한 미술 형행도 아쉬움을 남기며 흘러갔다! 이 시간은 엄마와 아빠에게 우리가족의 모습을 꼼꼼히 생각하고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우리 아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다시 보게 되고, 여러 사람들 앞에 나가 의젓하게 발표하는 모습도 아주 멋있었어. 엄마가 마냥 타박했던 만화는 어찌 그리 재미있고, 구성지게 그려 냈는지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만화 그릴 시간을 주기로 마음먹었어. 교과서에 만 아니면... 재미있게

그러서 엄마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엄마는 재민이가 아빠와의 사이가 조금 부드러워져서 참 좋구나. 아빠도 너희와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재민이와 보연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다.

엄마 딸 보연아! 어찌면 그렇게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잘거리는 모습이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엄마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단다. 앞으로도 예쁜 모습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엄마의 소망이야.

금요일을 제일 많이 기다리고, 패밀리가 뿔뿔히 떨어지는 것을 제일 많이 아쉬워했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즐겁게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을 떠나보자. 엄마 아들 딸, 지금처럼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자. 사랑해.

너희들도 엄마 아빠 사랑하지? 엄마는 알고 있어 재민이와 보연이가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엄마.

가족 미술 프로그램 **‘패밀리가뽏다’**
수업소개

2차 수업을 함께한 가족소개



갯이가족 : 한영희, 나인정, 한보연, 한재민



썰렁가족 : 임진상, 이상희, 임선정, 임성운



붕어빵가족 : 박선우, 조정화, 박하늘,
박유빈, 박해강, 박해민



말씀에 마음이 꽂히는 집 : 김중희, 송세현,
김지우, 김선우



꿀단지가족 : 최정희, 정민혁, 정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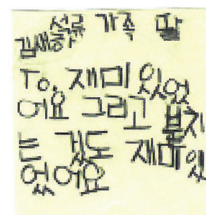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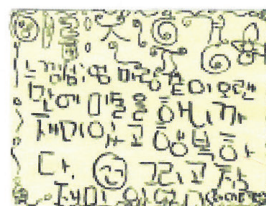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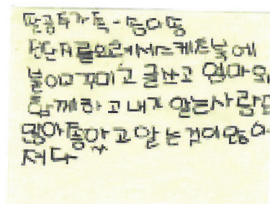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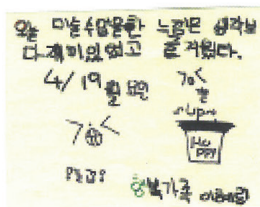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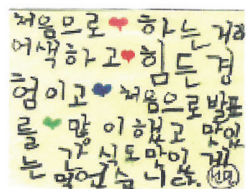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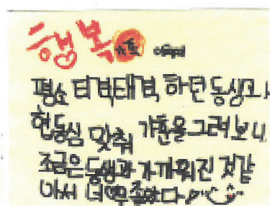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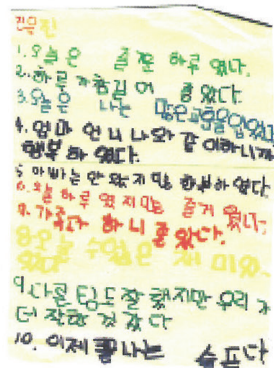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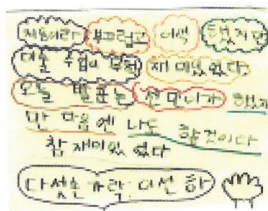


피터팬가족 : 유경훈, 이은경,
유원호, 유신호





1 첫 수업을 마치고 - 아이들



7) 2011 세내문화축제, 특별용기전시회 ‘용기, 천년전주를 날다’(2011)

행사개요

- 일시 : 2011.10.11(화)~10.16(일)
- 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 주최 : 2011세내문화축제제전위원회
- 주관 : 2011세내문화축제시민기획단, 전주삼천문화의집

전시소개글

지금도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일대에서는 각 마을 사람들의 기집놀이로 대규모의 합굿이 이루어졌으며, 농기는 농산기, 대기, 서낭기, 용기, 용당기, 용신기, 덕석기, 낭치 등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양했습니다. 농신기는 마을 사람들이 모일 때면 항상 등장하는 것으로 두레와 같은 공동체를 나타냈습니다. 농기는 흰색의 천에다 붓글씨로 ‘신농유업(神農遺業)’ 또는 ‘황제신농씨유업(皇帝神農氏遺業)’,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등을 쓰고, 신농씨용, 거북, 잉어 등을 기폭에 가득하도록 그립니다. 용은 물을 담당하는 수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물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용은 농업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시회를 통해 마을 용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민속문화의 계승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림면, 난전면 등으로 불리던 새넛가 마을의 용기들



용흥마을 용기

용흥마을은 우림면 계룡리에서 세내를 건너 전주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용흥마을 용기는 1954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보존상태가 제일 양호하다.



정동마을 용기

정동마을은 '샘골'이라고도 하며 물이 좋아서 붙은 이름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계룡산에서 마을기를 쫓고 기우재를 지내기도 하였다. 예전부터 사용하던 기는 없고 을미년(1955년) 칠월칠일에 다시 제작된 것으로 깃폭을 아래로 처지게 만들었다.



호암마을 용기

호암마을은 우림면 호암리로 범암마을이라고도 부르며 현 효자동 더-아파트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처음 제작된 기는 소하3년(1928년)에 제작되었으나 소실되고 무술년(1958년)에 새롭게 제작한 기 역시 마을회관의 화재로 년주만 남고 기폭은 불타 없어졌다. 이후 2000년 마을 기령당(경노당) 건립 기념으로 현재의 용기를 중인리 고석엽 화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했다.



중평마을 용기

중평마을은 ‘기미 가뭄에도 쌀밥을 먹는다’고 할 정도로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현 중평마을에 남아있는 용기의 년주에는 을미년(1895년, 고종 32년) 8월 15일에 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기폭에는 경자년(1960년)에 영덕정(마을모정 이름)에서 벽곡이 그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덕마을 용기

신덕마을은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으로 계룡산 서북쪽에 위치한다. 매년 백중 무렵 풍물을 치며 술땀을 벌였으나 몇 해 전부터 하지 않고 있다. 마을 용기는 소하5년(1930년) 경오년 칠월칠일에 제작된 것이며 현 보존 상태는 색이 많이 바라있으며 여러 군데가 해지고 찢어져 다시 꿰맨 부분이 많다.



하봉마을 용기

하봉마을은 모악산을 주산으로 원중인, 신안, 신금, 황소리 등과 함께 중인동에 속한다. 마을기는 병오년(1966년)에 금선암 주지 천재철씨에게 의뢰하여 제작했다. 하봉마을 용기는 다른 마을과 다르게 용의 머리를 기폭 상단으로 배치하여 마치 세로 그림처럼 보이도록 했으며, 색깔이 화려하다.



산정마을 용기

산정마을은 신기마을과 함께 장천리에 속했던 마을이다. 산정마을 용기의 앞면에는 갑인년(1914년)의 년주와 뒷면에는 갑오년(1954년)의 년주가 있는데 갑인년 용기의 기폭이 많이 훼손되어 이후 1954년 갑오년에 서정학씨가 제작하면서 갑인년의 년주를 그대로 새겨 넣었다 한다.



용산마을 용기

용산마을은 계룡산의 품안에 들어 있는 마을로 현재까지도 주위의 어느 마을보다 주민간의 화합과 단합이 잘 되는 마을로 소문이 나있다. 용산마을의 용기는 1973년 분실한 뒤 1997년에 새로이 제작하였다.



비아마을 용기

비아마을은 계룡산을 주산으로 등지고 남쪽을 향해 자리잡고 있다. 마을 용기는 신사년(1941년) 윤달 유월 십오일에 조성된 것이 많이 훼손된 관계로 2002년에 만세, 우묵, 장자, 용강과 함께 새로이 제작하였다.



함대마을 용기

함대는 '함띠'라고도 불리며 계룡리의 첫 마을로 현재는 마을 앞에 농수산물도매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함대마을 용기도 1973년 풍남제 재현하는 과정에 분실하여 1997년 다시 제작하였고, 현재 기점놀이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삼천민화의진

IV

사람들



종이접기로 시작된 공예 활동

20여 년 전, 제 동생이 재밌는 수업이 있는데 같이 배워보자고 해서 동생 따라 시민대학에서 처음 종이접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통해 종이접기뿐만 아니라 지끈 공예, 한지 부조, 한지 그림까지 종이 공예의 다양한 분야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민대학 수업이 폐강된 후에는 교수님 공방으로 찾아가 수업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정작 함께 시작했던 동생은 일찍 그만두고 저는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 싶어서 전문가 과정까지 마치게 됐어요. 제가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다 보니 종이접기가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교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면서 교수님 공방을 제가 이어받아 운영하게 됐어요. 처음은 동생 따라서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던 종이 공예가 어느덧 벌써 20년이 다 되었네요.

20년 전 공예를 처음 시작하던 그때와 지금의 차이

그 시절에는 공예를 순수한 배움과 취미로 시작하는 수강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방과후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오직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공예 기술에 대한 배움의 깊이는 얇고 순수한 배움보다 직업과 수익으로 연결 짓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요즘은 우리 생활 속에서 공예를 접할 기회가 많아져서 막상 수업을 가도 아이들이 시큰둥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학교나 기관에서 공예체험도 흔해져서 수강생과 강사들도 모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들이 기존의 작품도 새롭게 접근하고 더 다양한 공예품들을 기획하기 위해 연구해야 해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공예가들

보통 공예가들을 떠올리면 개성이 강해서 단합이 안될 것 같지만 저희 ‘삼천누리 공동체’ 선생님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으샤으샤 해요. 만약 저 혼자였다면 시도조차 못 했을 일을 함께 해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작업부터 함께 모여 수다도 떨고 아이디어 공유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각자 집에 있는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어떤 순간은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한동안 보지 못하면





공동체 공예가들과 삼천마을 축제에 참여해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모습

그립기도 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활
력소가 되고 지치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활동할 때보다 공동체 선생님
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얻었어
요. 공동체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얻은 게
제일 큰 소득이에요.

후배 공예 활동가들을 위한 당부

저는 후배 공예가들이 즐기면서 이 일을 계
속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공예는 자기 안의
기쁨이 없다면 오래 하기 힘든 일이에요.
공예도 다른 일처럼 오래 하다보면 슬럼프
가 오기도 해요. 슬럼프가 왔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예전의 것도 더 새
롭게 바라보고 다시 이어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후배 공예가들이 더 오랫동안
공예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기관들
의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예
가들이 공방을 운영하려면 유지비가 필요
해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프로젝트 진행비
를 후불제로 결제하는 관행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2달 후 입금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희 같은 공예가들은 진행비 입금이 늦어지
면 공방운영에 타격이 커요. 그래서 후불제
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상 편
의를 위해서 후불제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 소상공인들이나 활동가들을 위해서는
선입금으로 바뀌어야 해요. 기관의 행정 절
차들이 개선되서 우리 후배 공예가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으
면 좋겠어요.

꼼지락 공방_유 미



종이랑 ‘꼼지락’ 거리는 재미

처음 저에게 공예를 배워보라고 권했던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2001년에 삼천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온고을 시민대학 수업이 생겼는데 종이접기 강좌가 있으니 한 번 배워보라는 남편의 권유로 수강신청을 했어요. 그 당시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느라 지쳐있던 중에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종이접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배우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종이접기뿐만 아니라 특히 한지 부조 공예에 매력을 느껴서 지금까지 공예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한지 부조를 통해 맺은 인연

‘삼천문화의 집’

시민대학에서 수업은 맛보기 정도였다면 제대로 된 한지 부조 공예는 전주삼천문화의 집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삼천문화의 집에서 ‘한지민속그림’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강사님을 따라 삼천문화의 집에서 한지부조 공예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강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강사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마침 지도자 과정까지 마친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2003년부터 ‘한지민속그림’ 수업을 이어받게 됐어요.



꼼지락 공방 내부의 풍경

첫 수업을 떠올리면 엄청 떨렸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조인받을만한 주변 관계자도 없어서 스스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수강생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수업했어요.

나만의 작업실 '꼼지락 공방'

사실 처음 공예를 배울 때 누구를 가르치고 직업으로 삼겠다는 욕심보다 제가 좋아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래

서 제가 편하게 작업할 공방이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중앙시장 상가에서 공방을 시작했다가 아이들과 집이 가까운 삼천동으로 옮겨왔어요. 여기 삼천동으로 옮겨 오면서 '꼼지락'이라는 간판을 쓰기 시작했어요. 공예는 손으로 물건들을 '꼼지락 꼼지락'거리는 일이기 때문에 꼼지락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었어요.

여기서는 아이들과 종이접기 수업이나 클레이 수업을 하기도 하고 1-day 클래스 의뢰도 가끔 있지만 외부 수업이 많아서 주로 수업 재료 준비작업을 많이 해요.

공예 수업을 통해 만난 사람들

저는 공예를 배우면서 손으로 무언가 만들고 집중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학교와 기관에서 수업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처음 방과후 수업을 시작했던 곳은 특수학교였는데 보통의 아이들보다 서툰 손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양에 있는 마음사랑병원 수업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



공동체 공예가들과 거마공원에서 열린 삼천마을 축제에서 공예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모습

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예 수업하면서 칭찬도 더 많이 해
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속 상처를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요.

공예가들의 만남 '삼천누리 공동체'

여기 삼천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공방들이
생겨나면서 저희 공예가 선생님들끼리 네
트워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두
레 공동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

터 지금까지 '삼천누리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매일같이 오가며 안부를 챙
기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며 겪는 고민이나 힘든 이야기를 나
누면서 서로 치유 받기도 해요.

꿈을 담는 공방_ 박찬미



나의 '꿈을 담는 공방' 이야기

공예를 시작하기 전에 수학·과학 개인 수업을 10년 가까이 했어요. 오랫동안 과외 수업만 했더니 활동반경이나 만나는 사람이 협소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해외 온 과외 수업 이외에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마침 POP에 관심이 있었는데 전

주삼천문화의 집의 수강 모집을 보고 신청하게 됐어요.

처음 문화의 집에서 한지 부조와 POP 공예를 같이 배웠는데 막상 해보니 POP 공예가 더 적성에 맞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취미로 배우다가 점점 다음 단계로 나아가다

보니 자격증도 취득하고 전문가 과정까지 마치게 됐어요.

제가 POP 공예 전문가 과정까지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들의 영향도 있어요.

그 당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고등학생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열심히 배우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끝까지 해보려고 마음먹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 공예 배우는 일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전문가 과정까지 마치고 나니 이제 이 길로 방향을 바꿔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방을 시작하게 됐어요.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공예를 배우고 공방 일을 시작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다른 공예가들처럼 방과후 수업이나 외부 활동을 하면서 공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예가’라는 호칭도 부담스러울 만큼 정작 개인작품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부 활동을 안정시키고 개인작품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해요.

함께 나아가는 길 ‘삼천누리 공동체’

2014년에 처음 개인 공방을 열고 2년 정도 혼자 활동해왔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온두레 공동체 사업을 알게 되면서 삼천동 주변의 다른 공방 선생님들과 네트워크를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의 공방 선생님들은 각자 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재료 구입이나 수업 커리큘럼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기 공방에서 혼자 작업하던 공예가들이 이제는 서로의 공방을 오가며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고민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어요.

삼천문화의 집과의 협업

저희가 초창기 공동체 사업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부터 삼천문화의 집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프로젝트 공모 사업 기획안 작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삼천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공예가들을 모아주시고 저희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동안 삼천문화의 집과 ‘이야기가 있는 공방거리-고살’ 프로젝트와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서 열렸던 ‘삼천 夜한 플리마켓’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저희도 기획단계부터 함께 참여해왔어요.



‘이야기가 있는 공방 거리 Go’ 프로젝트 당시 공예체험 부스 운영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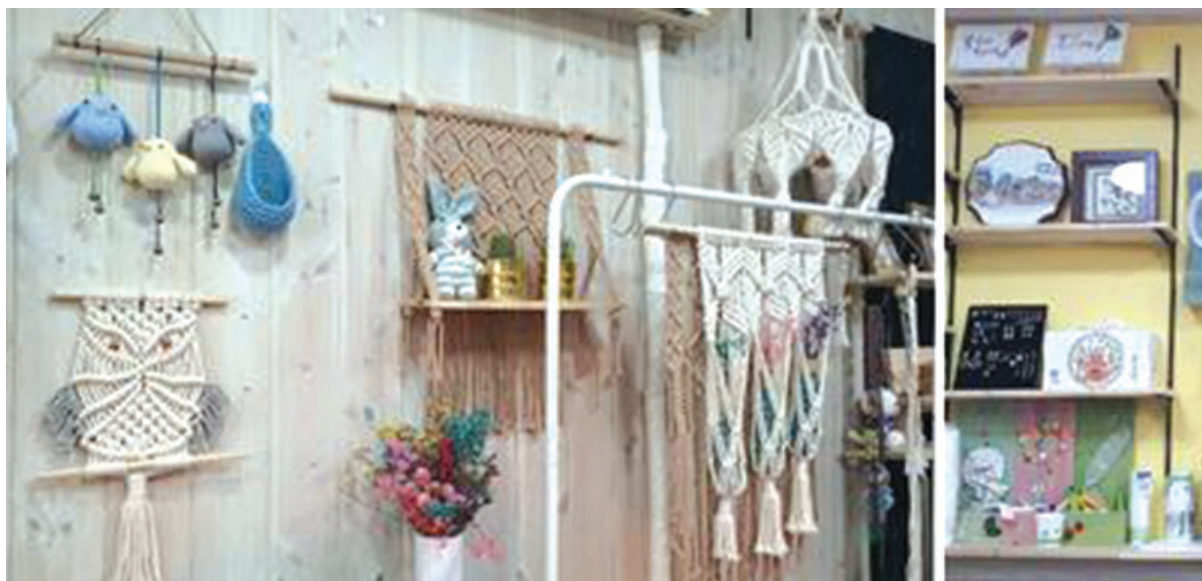
수강생에서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자로서 바라본
삼천문화의 집

문화의 집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가까운 곳에 문화의 집이 있어서 공예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단순히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더 성장하기 원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도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삼천문화의 집은 아주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제가 공동체에서 지역 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행정적인 절차에서 오는 불편함이었어요. 예를 들어 행사준비를 위해 재료 구입을 미리 해야 하는데 자금운영의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서류들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요구들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관의 실무자들께서 현장 활동가의 입장에서 더 이해하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 직장을 따라 부천에서 전주로 내려왔어요. 제가 마침 삼천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집 근처에 오봉례 선생님의 종이 접기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딸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고 싶어서 보냈다가 저도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공방에서 다른 공예가 선생님들과 친해지게 됐어요. 사실 저도 부천에서 비즈공예를 배워 개인 공방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동체 선생님들이 저에게 함께 해보라고

‘손노리’ 공방을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어
요. 제가 학교에서 아동 요리 수업도 하기
때문에 주방이 필요했는데 이 공방은 다른



손노리 공방의 내부 모습/ 이명숙 공예가의 마크라메 작품과 비즈공예를 비롯한 공예 작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공방과 달리 주방이 커서 이곳을 선택했어요. 덕분에 점심시간이면 공동체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을 만들어서 먹는 사랑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공예 관련 수업도 함께 하고 있어요. 저는 마크라메와 비즈공예가 전공이라서 예전에 사범과정까지 마쳤고 지금은 그 외에도 폴리머 클레이, 와이어 공예, 캘리 공예 작품들을 만들어 전시 판매도 하고 있어요.

경기도와 전주 지역의 공예 활동의 차이가 있다면?

경기도와 전주에서 각각 공방을 하며 제가 느꼈던 차이는 기본적인 정서였어요. 경기

도 지역은 각자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깊은 정을 쌓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보다 개인 활동하시는 공예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전주에 와서 저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많이 느꼈어요. 여기 공예가 선생님들은 정말 정이 깊어요. 그리고 같은 전주에서도 저희 '삼천누리 공동체'가 특히 연대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공예가들은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성향도 달라서 연대하기가 힘든데 저희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와 전주는 공예 트렌드에서 2~3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크라메 같은 경우 이미 경기도는 유행이



지나갔는데 전주는 올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동 요리도 저희 공동체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이미 경기도 쪽은 학교에서 오븐이나 주방시설을 다 갖추고 예전부터 요리 수업을 해왔어요. 전주 지역도 이제 요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을 늘려가는 추세예요.

‘삼천누리 공동체’ 활동과 삼천문화의 집과의 협업

저에게 공동체 활동은 제 삶의 빛과 같아요. 그전에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조금은 지치고 우울했었는데 여기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밝아졌어요.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선생님들과 프로젝트들을 해오면서 몸은 지쳐도 제 발걸음은 항상 신이 나서 가벼워요.

공동체 활동을 하며 삼천문화의 집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들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우선 저희 공방들과 가까워서 편리하고 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저희 공예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아요. 그리고 저희 활동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손으로 하는 공예의 매력

저는 손으로 하는 것은 다 좋아해요. 공예를 하고 있으면 모든 잡생각이 사라지고 사람들과 함께 만들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공예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 공예를 시작한 계기를 들어보면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공예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이해해주고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공예를 할 때 몇 시간씩 집중해서 한 작품을 만들고 나면 뿌듯함과 성취감이 정말 커요. 그리고 정성껏 만든 내 작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도 정말 행복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해요. 그리고 공예를 하고 있으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게 돼서 좋아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자꾸만 다시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늘숨 공방_ 이수정



취미, 직업이 되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조금 이른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딸 아이와 부딪히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아이 친구의 엄마가 하는 공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일을 좋아해서 학교 앞 문구점만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서 구경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취미로 4년 동안 POP 공예, 냅킨 아트, 리본공예들을 배우다가 공방에서 같이 배우던 다른 선생님과 토탈 공예 공방을 열게 됐어요. 처음 2년 정도 공동 공방을 운영하다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개인 공방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해

서 지금 이 골목으로 오게 됐어요. 벌써 이 골목에서 '늘숨 공방'을 운영한 지 3년 차가 됐어요. 이 공간에서 제 개인작품도 만들고 다른 선생님들과 공동작업을 하기도 해요. 이곳은 온전하게 제가 작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삼천문화의 집과 인연

삼천문화의 집과는 삼천동 마을축제를 통해 알게 됐어요. 박찬미 공예가님과의 인연으로 주민 기획단 회의에 참석하면서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축제에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공예체험 부스를 맡아서 운영했어요. 그 계기로 저도 삼천문화의 집 회원 등록도 하고 문화의 집 관련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공예 활동가로 성장

사실 공예는 취미로 배울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공방 운영하면서 외부 수업 준비나 재료 작업하느라 정작 개인작품 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공방운영에 집중 하다보면 아이들과 집안일에 소홀해지기 쉽고 그럴 때마다 힘에 부치기도 해요. 그래도 공방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제가 아이들과 매일 집에서 부대끼며 살았다면 아이들한테 잔소리만 늘고 사이가 더 멀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공예 활동을 하면서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고 다른 공예 선생님들과 협업하면서 제 일을 열심히 할 때 보람을 느껴요. 저는 ‘삼천사람 시민예술가’ 모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해온 덕분에 공예가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삼천사람 시민예술가’ 공동체

삼천사람 시민예술가 모임은 2014년부터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이 지역 공예가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저는 박찬미 선생님을 통해 늦게 합류했지만 저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대표를 맡다 보니 2018부터 2019년까지 제가 대표를 맡게 됐어요. 공동체의 대표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최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고 애썼어요. 그래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작은 마찰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공동체가 삼천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마을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점점 예산은 축소되고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는 인상됐는데 여전히 체험비는 3000원이라서 정작 공예가들의 활동비는 자원봉사자 수준이에요. 앞으로 예산 지원이 더 늘어서 저희 공예가들의 활동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늘숨 공방 내부



삼천마을 축제 공예체험 부스

일상·모닝·굿밤 요가 프로그램 강사_ 박정이



내 삶을 바꿔준 요가

제가 원래 비염이 정말 심했어요. 부비동염 수술도 할 만큼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비염약을 먹으면 항생제 부작용까지 있어서 항상 몸이 좋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큰아들도 비염에 천식까지 있어서 제가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약도 많이 써보고 큰 병원도 다녀봤는데 효과는 그때뿐이었어

요. 그런데 제가 요가를 시작한 뒤로 제 몸과 삶이 바뀌었어요.

제가 요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큰아들 덕분이에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어린이 요가를 다녔는데 아이 따라서 요가원을 다니다가 저도 요가에 재미를 느꼈어요. 그러던 중에 요가원 원장님께서 요가 지도자 과정에 도전해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린이 요가 수업 위주로 부담 없

이 해보자는 마음으로 지도자 과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서울까지 가서 연수도 받고 저희 아이들도 함께 도와준 덕분에 전문가 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저는 요가를 통해 건강을 얻고 삶이 바뀌었어요. 요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비염으로 고생하며 삶이 우울하기까지 했어요.

만약 지금까지 제가 요가를 몰랐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삼천문화의 집과 함께 시작한

요가 강사 시절

제가 요가 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았던 2003년 무렵, 요가원 원장님께서 삼천문화의 집을 소개해주셨어요. 마침 삼천문화의 집에서 요가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고 있는데 집도 가까우니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막상 첫 요가 수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수강생분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요가 동작을 까먹어서 순간 멍해지고 등골에 땀이 났어요.

그 순간 어설픈 제 모습을 보고 어떤 수강생께서 ‘수업이 왜 이래’라고 혼잣말로 불평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서

툰 점이 많아 죄송하다고 바로 사과를 드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요가 동작을 외웠어요.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삼천문화의 집에서 요가 수업을 할 때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기여서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요가 프로그램과 한지 부조, POP 공예, 서예 강습, 기타 수업 정도였어요. 그래도 가을이면 천변에서 문화의 집 축제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문화의 집 강사들의 모임도 활발하게 운영했어요. 지금은 새로운 강사님들도 들어오시고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모임은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요가를 통해 만난 사람들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 오셨던 우체국 직원분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 요가 수업에 오셨을 때는 어깨가 아파서 혼자서 옷도 입지 못할 만큼 어깨 통증이 심했어요. 조만간 어깨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했는데 제가 수술보다 요가로 좋아질 수 있으니 꾸준히 요가를 해보시길 권했어요. 그렇게 저를 믿고 꾸준히 요가를 하시더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회원님 어깨 치료해드렸으니 제가 병원비 벌어



체육시설에서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요가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드렸네요.’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삼천문화의 집에서 요가 프로그램
수강하셨던 수강생 중에 아픈 허리를 붙잡
고 오셨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허리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
도였는데 의사가 수술을 해도 경과가 좋지
않다고 말할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
요.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보다 요가를 꾸준히

히 해서 치료해보는 것도 도움 된다고 해서
저희 요가 수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수강생의 상태를 봤을 때 시
니어 요가를 권유했을 만큼 몸 상태가 정말
심각하셨는데 요가 수업을 꾸준히 다니시
더니 자세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보였어
요. 지금은 뒤에서 보면 젊은 아줌마로 보
일 만큼 자세가 좋아졌고 가끔 손주도 봐줄
만큼 건강해지셨어요.

제가 하는 요가 수업은 초창기부터 지금까
지 꾸준히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많아요. 강
사 초기에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포
기하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해온 덕분에 별
써 18년이 지나 오늘이 온 것 같아요.

요가를 추천하고 싶은 대상은?

저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요가를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공부 때문에 앉아
있는 시간은 많은데 오히려 학교 체육 시간
은 줄어서 몸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핸드
폰이나 게임 때문에 목과 어깨의 자세도 나
쁘고 심신이 많이 지쳐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슴을 펴고 어깨를 늘려주
는 후굴 동작을 추천하고 싶어요. 후굴 동
작은 자세교정뿐만 아니라 기관지와 폐 기
능 개선에도 좋아요. 그리고 요가 동작 중
에 집중력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동작도 있
어요.

이런 요가 동작을 꾸준히 하면 정서적 안정
이나 학습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청소년
들이 요가를 통해 정신과 몸의 밸런스를 잡
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랜 인연을 이어온 '삼천문화의 집'

저는 전주삼천문화의 집을 떠올리면 '행복'
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어찌다 보니
현재 근무하시는 삼천문화의 집 직원분들
보다 제가 더 오래 다녔을 정도예요. 그래
서 삼천문화의 집은 저에게 오랜 집처럼 느
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더이상 요가 수업
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오더라도 삼천문화의
집만큼은 계속 이어 가고 싶을 만큼 애정이
남달라요.

그리고 제가 문화의 집에서 오랫동안 강의
할 수 있었던 것도 직원분들 덕분이예요.
강사로서 제가 요청하는 사항들도 잘 반영
해주시고 다들 열심히 애써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삼천문화의 집에
서 계속 요가 수업하며 제 노년의 삶도 즐
기고 싶어요.

와이키키 우쿨렐레 프로그램 강사, 민현주



우쿨렐레 강사가 되기까지

저는 아이들 대상으로 피아노 교육을 오래 해왔어요. 그러다 7년 전,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 있었는데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막상 시작해보니 우쿨렐레 매력에 빠져서 남들은 보통 마스터 과정까지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저는 하루에 6시간 가까이 연습을 했더니 6개월 만에 수료하게 됐어요. 처음 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막상 수업을 시

작하려니 저만의 커리큘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출판된 우쿨렐레 교재를 다 사서 비교하고 연구하면서 석 달 동안 저만의 강의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꾸준히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악보 편곡도 하면서 수업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쿨렐레 악기의 매력

피아노는 연습과 연주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온전히 즐기면서 배우

기 힘들어요. 반면 우쿠렐레는 비교적 쉽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악기라서 배우는 때 스트레스가 적어요. 한때 기타 배우는 취미가 인기를 끌면서 기타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타는 코드 잡기가 어려워서 주법 배우다가 포기했던 사람들이 기타 주법과 비슷한 우쿠렐레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쿠렐레는 기타 주법과 비슷하지만 줄이 4개라서 코드 잡기도 쉬워요. 보통 1년 정도만 꾸준히 연습하면 거의 마스터 할 수 있어요. 특히 악기가 작고 가벼워서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도 배우기 좋아요.

‘우쿠렐레’라는 이름은 하와이어로 ‘튀어 오르는 벼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악기 연주할 때 통통 튀는 소리가 매력이에요. 그리고 악기 몸통과 모양에 따라 소프라노와 바리톤, 테너, 베이스 같은 다양한 음역대를 연주할 수 있어서 우쿠렐레만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도 가능해요. 우쿠렐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도 잘 어울리고 간단한 코드 몇 가지만 알면 혼자서 노랫말을 지어 자신만의 이야기로 노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쿠렐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쿠렐레 악기가 가진 ‘치유’의 힘

저도 우쿠렐레를 하면서 치유 받았지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만났던 수강생분들도 우

쿠렐레를 통해서 치유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10년 가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수강생이 계셨는데 항상 어두운 계열의 옷만 입고 말수도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쿠렐레를 배우시면서 점점 성격과 표정이 밝아지고 본래의 쾌활한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직에서 정년퇴직하시고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우울증까지 왔던 수강생이 계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지도 못하셨는데 우쿠렐레를 하고 싶어서 수업 시간 내내 꼬박 서서 배우셨어요. 한 시간씩 서서 배우는 일이 힘든데 1년 가까이 성실하게 다니시면서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요.

어떤 50대 후반 여성분은 남편분 생일 때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연주해주고 싶어서 배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가족들에게 우쿠렐레 연주를 해줄 때 본인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강생 중에 임신부도 계셨는데 우쿠렐레를 배워서 음악 태교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불러온 배 위에 우쿠렐레 악기를 올려놓고 연주를 하면 배 속의 아기가 음악 소리를 듣고 태동을 했어요. 그분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가장 처음으로 우쿠렐레를 연주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서정적이



삼천마을 축제에서 공연하는 우쿠렐레 수강생들/2017년 거마공원

고 밝은 노래들 위주로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와 자녀가 함께 배우던 수강생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소설가가 되고 싶은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게 해주고 싶어서 신청하셨대요. 처음에는 서로 공감대를 쌓고 나중에 추억이 될까 싶어 시작했는데 우쿠렐레 덕분에 사춘기도 잘 넘길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쿠렐레를 배우면서 수강생분들의 우울한 마음이 치유되고 표정이 밝아지거나 가

족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우쿠렐레가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어요.

우쿠렐레 강사의 첫 시작을 함께한 삼천문화의 집

제가 우쿠렐레 수업을 시작하던 초기에는 우쿠렐레 지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가며 연구하고 여기저기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그러다가 처음 수업을 시작한 곳이 삼천문화의 집이었어요. 처음은 오카리나

수업을 먼저 하다가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우쿠렐레 악기를 소개했어요.

자극을 주는 운동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카리나 수업의 수강생분들 반절 정도에 새로 유입된 수강생이 모여서 2013년도에 우쿠렐레 수업을 시작했어요. 저희 수강생분들과 삼천마을 축제에서 공연도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와 어른들이 좋아하는 트롯트부터 포크송 같은 가요 곡들을 연주했어요. 저희 공연을 보는 관객들도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삼천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장소가 외진 곳에 있어서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통이나 접근성이 좋은 큰 길가로 이전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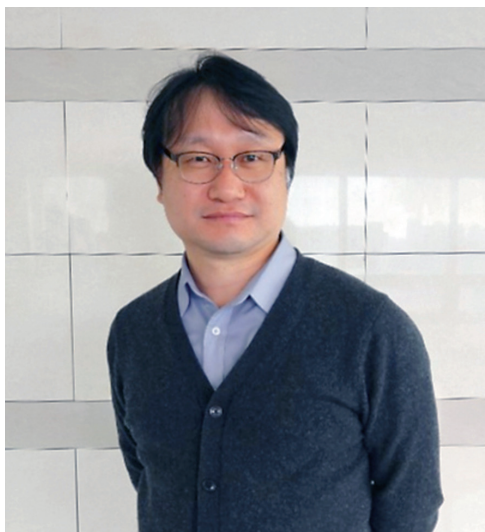
요즘은 학교에서도 어린이나 청소년들 창의·체험 수업에서 많이 배우는 추세예요. 리코더와 달리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고 자기 공간에서 거리유지 하며 배울 수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악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음 파트를 나눠서 연주하면 칼림바로 단체 공연도 할 수 있어서 기대돼요. 저는 음악을 배워서 큰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악기 배우는 경험을 통해서 삶의 작은 행복을 느끼고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옛 어른들은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먹고 살기 바빠서 평생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어른들이 악기 연주하며 노래 부르실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거나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성취감을 느껴요.

앞으로 문화의 집에서 지역주민들과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악기도 시대의 유행을 타는데 요즘은 '칼림바'라는 악기가 유행이에요. 칼림바는 작아서 휴대가 편하고 기본적인 연주 기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악기 소리가 무척 아름답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손끝에

한국 전통문화의 전당_ 이영욱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에서 정책 기획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영욱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에서 근무하며 전주시 공예 예술가들과 협업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전주시가 수공예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을 중심으로 수공예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공예 진흥팀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정책기

획팀장으로 전통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안을 업무로 임하고 있습니다.

삼천문화의 집과의 인연은?

제가 한옥마을 공예전시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사무국장이셨던 이준호 관장님(삼천문화의 집 2대 관장 역임) 과의 인연으로 삼천문화의 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준호 관장님께서 한국화를 전공한 저에게 삼천문화의 집에서 한국화 수업을 맡아 달라고 하셔서 잠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본적인 동양화처럼 사군자의 난

을 치는 수업이 아니라 조금 더 실험적인 수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수강생 분들도 성실하게 참여해주셨고 저도 한국화 수업을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천문화의 집 수강생분들은 공예나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관 실무자로서 삼천문화의 집을 평가한다면?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실무자로서 삼천문화의 집은 지역주민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특히 예술 공예가들의 활동이 돋보이는 기관이라고 평가합니다. 2020년 초 전주시 공예인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삼천문화의 집이 비교적 공예 활동가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천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공방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예가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삼천문화의 집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삼천문화의 집은 지역 골목의 환경을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삼천동은 세내뜰 축제나 기점놀이 문화, 막걸리 골목 같은 지역 자체의 역사적 문화 소스가 많은 것도 장점

입니다. 그래서 삼천문화의 집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삼천문화의 집이 있기까지 역대 관장님들과 직원분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시 문화예술 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역대 관장을 역임하면서 오늘날 삼천문화의 집의 방향성을 잘 잡아 왔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지역주민들과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역 상인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많지 않은 문화의 집 사업비의 한계를 생활문화센터 지원금으로 확장해서 운영하는 등 문화 사업능력이 뛰어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지역 공예가들을 위해 어떤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나요?

전주시는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을 위해 공예가들에 대한 아카이브 조사와 무형문화재 명장들의 '한국공예장인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공예상품을 알리고 판매하며 공예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과 마케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전통 문화의 전당에서는 ‘온브랜드 사업’을 통해 명인과 디자이너가 전통공예를 현대적인 디자이너의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브랜드 사업은 전통 공예의 현대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통해 공예가들에게 상품개발부터 마케팅과 유통과정에 대한 비즈니스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공예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과 생각들

저 또한 미술 전공자로서 지역 예술가와 공예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실무자로서 그분들의 순수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히 공예가 산업으로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같은 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공예 예술가들이 작품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기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전주 문화의집 20년

삼천문화의집 편

발행처 | 전주문화의집협회

발행인 | 한천수

글쓴이 | 성기석, 류현순, 송아름, 남선미, 서민경, 양지희

발행일 | 2021. 02. 26.

디자인 | ㈜이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전주문화의집협회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